



SHART 20th Anniversary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9 772383 836002  
ISSN 2383-8361



<아트뷰>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트뷰

2025 August & September

Vol. 182

성남문화재단

특집

2025 성남페스티벌

아티스트 토크

성남페스티벌 총감독 이진준

미리보기

여름특별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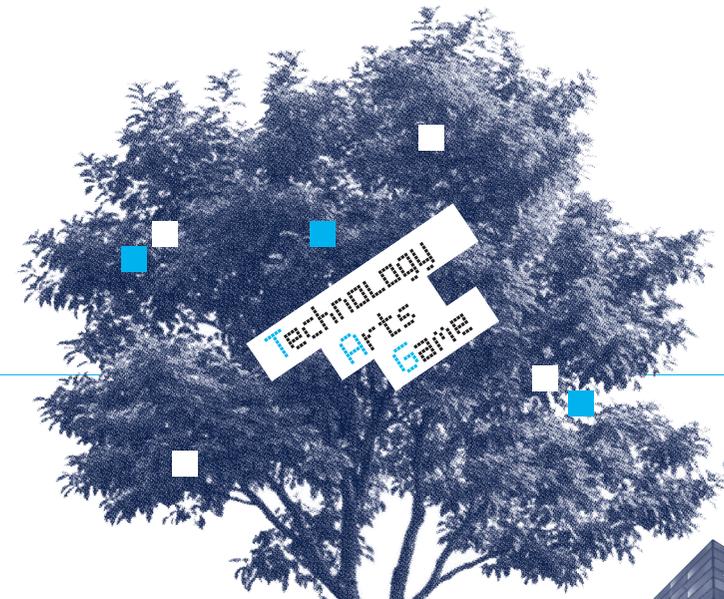
<BE CHILD - 아이처럼>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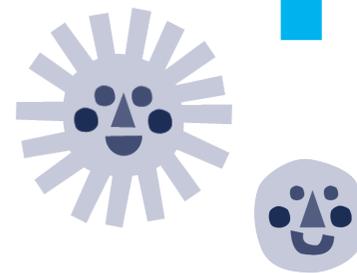
시와 콘텐츠 산업

아트뷰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2025 August & September  
Vol. 182



2025 SEONGNAM FESTIVAL



# C ONTENTS

2025 August & September  
Vol.182



더 좋은 <아트뷰>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02** **인트로**  
이달, 성남의 문화예술 소식

## SEONGNAM FESTIVAL

**08** **살펴보기**  
2025 성남페스티벌

**12** **아티스트 토크**  
성남페스티벌 총감독 이진준

**20** **칼럼**  
세계의 예술+기술 융합 축제

## VIEW

**30** **미리보기 1**  
국립무용단 <사자의 서>

**34** **미리보기 2**  
연극 <킬 미 나우>

**36** **미리보기 3**  
필하모닉 스트링 퀸텟 베를린 내한 공연

**38** **미리보기 4**  
파크 콘서트·피크닉 콘서트

**40** **미리보기 5**  
2025 지역예술가교류전 <감각퍼즐>

**44** **미리보기 6**  
여름특별기획전 <BE CHILD - 아이처럼>

**48** **다시보기 1**  
야쿠프 호루샤 & 밤베르크 심포니, 김봄소리

**52** **다시보기 2**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56** **인터뷰**  
더블베이스스트 유시현

## CULTURE +

**62**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66** **트렌드**  
시와 창작의 미래

## SEONGNAM +

**74** **성남의 예술가**  
극작·연출가 김재우

**80**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88**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93** **8·9월의 큐레이션**  
프로그램 가이드

**99**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100** **성남아트센터 공간 탐구생활**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이달, 성남의 문화예술 소식

문화로 확장하는 공공가치: 성남문화재단-국립박물관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성남문화재단 윤정국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와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과 공공문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6월 30일(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서로의 문화예술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콘텐츠 및 플랫폼 상호 연계·활용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성남문화재단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공연·전시 콘텐츠 및 객석 나눔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소외계층 향유 기회 확대 ▲일부 공연의 상호 공간 운영을 통한 공연예술 프로그램 공동 발굴 ▲‘MU:DS(뮤즈)’ 연계를 통한 홍보 및 지역 예술인 실무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양 기관 공연장 20주년 기념 공동 캠페인 및 상호 홍보 등을 협력하게 됐다. 또한 시민에게 더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 역량 강화와 지역 창작 생태계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문화의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역과 중앙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더 많은 시민이 문화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약은 공연, 공간, 사람을 잇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eongnam: Culture and Arts News

구미동 성남물빛정원, ‘금난새의 한여름 밤 콘서트’로 시민 참여 문화 행사 시작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난 7월 5일(토) 오후 6시, 성남물빛정원 두물길 산책로 야외무대(분당구 구미동 195번지)에서 ‘금난새의 한여름 밤 콘서트’를 개최했다.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2만9,041㎡)에 두물길 산책로를 조성하고서 처음 여는 시민 참여 문화 행사다.



7월 5일 성남물빛정원 두물길 산책로 야외무대에서 열린 ‘금난새의 한여름 밤 콘서트’ © 성남시청

이날 콘서트는 금난새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의 진행으로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기타리스트 지익환, 색소포니스트 황동연 등이 함께했으며,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중 발췌곡, 영화 <디어 헌터> 중 ‘카바티나’ 등 친숙한 클래식과 영화음악을 선보였다.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94년 착공해 1997년 준공했으나, 시험 가동 중 인근 주민 반대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28년간 방치돼 기피 시설로 인식돼 왔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시민 공모를 통해 ‘성남물빛정원’으로 명명했다. 과거의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맑은 물이 흐르고, 빛처럼 밝아지며 시민 모두가 함께 쉽고 감동을 나누는 ‘예술과 생명의 정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은 이름이다. 장기간 방치돼 기피 시설로 인식되던 흔적을 치우고 미래를 비추는 재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공간은 두물길 산책로(6월 13일 개장), 뮤직홀(8월 정식 개관)과 카페, 미술관(장기 프로젝트)으로 구성된다.

성남시는 새로 짓는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에서 8월 시범 운영 공연을 3차례 개최하고, 9월부터 스트링 오케스트라, 실내악 앙상블, 독주회 등 공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성남시 구미동 195번지 문화복합공간 ‘성남물빛정원’ 내 뮤직홀 조감도 © 성남시청

이달, 성남의 문화예술 소식

성남 여성의 귀감, '제28회 강정일당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강정일당 사당 풍경과 성남문화원이 발간한 강정일당 자료집 소개 ©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이 '제28회 강정일당상' 수상 후보자를 8월 29일(금)까지 접수한다. 성남시가 지정한 향토유산 제1호 강정일당<sup>H772-1832</sup>의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 상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 여성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조선 후기 여류 성리학자 강정일당은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유교 경전에 밝았고 시와 문장에 능했으며, 글씨체 '해서<sup>海書</sup>'에도 재능이 뛰어났다. 남편 윤광연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도가풍의 시 40여 편을 남겼으며, 유고집 <정일당유고>가 전해진다.

강정일당의 인품과 삶은 효행과 참된 아내-어머니로서의 모습, 문인으로서의 덕성과 품격 모두 높이 평가받는다. 이에 성남시는 1986년 강정일당을 향토유산 제1호로 지정한 데 이어, 2005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하 바 있다.

성남문화원은 1992년부터 강정일당의 정신을 본받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여성에게 '강정일당상'을 시상해 왔다. 추천 대상은 성남시에서 5년 이상(공고일 기준) 거주·활동한 50세 이상 여성 중 인품과 덕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인물로, 추천권자는 시장·구청장·동장·기관장·사회단체장이다. 9월 중 공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며, 10월 중 시상식을 통해 성남문화원장 상패와 부상 400만 원을 수여 예정이다. 문의: 성남문화원 031-756-1082

Seongnam: Culture and Arts News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2학기 강좌 접수 시작



성남문화재단의 창의 예술 교육을 대표하는 아카데미가 2025년 2학기 강좌를 진행한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수준 높은 예술 강좌를 선보이며 신뢰받는 문화예술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는 올해도 전문 강사진과 함께하는 예술 실기·감상인문, 어린이 창의융합예술 등 총 60개 강좌의 흥미로운 커리큘럼을 준비했다.

2학기 성인 예술실기 강좌는 8월 5일(화)부터, 성인 감상인문과 어린이 강좌는 9월 2일(화)부터 요일별 개강한다. 현재 온라인 접수와 아카데미 안내 데스크 현장 방문 접수(~마감 시까지) 모두 가능하다. 다만 강좌별 마감 상황이 상이하므로, 현장 접수는 강좌 잔여 인원 등 전화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문의: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031-783-8156(평일 10시~오후 5시, 주말·공휴일 제외)

2025 성남 문화정책 포럼II: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 성남'을 논하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시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사람의 정서와 공감 중심의 문화정책을 고민하는 장으로 2025 성남 문화정책 포럼II <성남 예술·기술 융합 정책 포럼: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 성남>을 8월 7일(목)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에서 개최한다. 지난 5월 26일 열린 <2025 성남 문화정책 포럼I: 성남 문화자원 활용 글로벌 콘텐츠 창작 방안> 후 두 번째 순서다.

포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전문사 전수한 주임교수를 좌장으로 정우정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의 '문화예술의 하이브리드화, 그 가능성과 과제: 체화된 경험 기반 장소 만들기, 장웅조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부교수의 '흔한 시민 참여물인 줄 알았다', 성남문화재단 예술

기술융합프로젝트 '업스케일링 성남' 디렉터이자 한예종 겸임교수인 남기룡의 '업스케일링 성남: 지역의 창의적 고유성' 발제가 이어진다. 또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재단의 역할과 과제, 기업 및 예술인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 바로 가기

SEONGNAM FESTIVAL

# SEONGNAM FESTIVAL

2025 성남페스티벌

2025.

9.19(Fri)

9.28(Sun)

TAG Seongnam

Technology

Arts

Game

08 살펴보기  
2025 성남페스티벌

12 아티스트 토크  
성남페스티벌 총감독 이진준

20 칼럼  
세계의 예술+기술 융합 축제

## 2025 성남페스티벌

# 자연과 기술,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축제

기술과 예술, 시민의 상상력이 만나는 미래형 축제, 2025 성남페스티벌이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성남 곳곳에서 펼쳐진다. 도심 속 쉼터로 사랑받는 분당 중앙공원부터 성남을 관통하며 시민의 삶을 이어 주는 탄천, 원도심의 희망대근린공원과 첨단기술 도시 성남의 내일을 그려 갈 판교역 일대까지 축제의 무대가 되어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성남 페스티벌에서 펼쳐질 동화 같은 세계, 내일의 기술과 예술을 향한 축제의 여정이 시작된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성남페스티벌은 이름 그대로 성남을 대표하는 축제답게,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첫째 탄천 수상무대에서 펼쳐진 메인 제작콘텐츠 <대환영>(예술감독 김태용)으로 융복합 축제의 가능성을 엿봤다면, 지난해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의 슈퍼IP를 활용한 <이머시브 이모션스Immersive Emotions>(예술감독 양정웅)는 몰입형 전시와 공연으로 관람객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즐기는 새로운 축제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5 성남페스티벌은 'T.A.G. Seongnam'을 주제로, 기술Technology과 예술Arts, 게임Game이 어우러져 그간 성남문화재단이 추구해 온 융복합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성남의 자연을 스크린 삼아 펼쳐지는 대규모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부터 AI 음향 기술, AR, 드론, 게임 등 성남이 지닌 4차 산업의 역량과 에너지를 기반으로 자연과 기술,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차원의 예술적 서사를 담아 낼 예정이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카이스트KAIST 아트앤테크놀로지KATEC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이진준 교수가 총감독을 맡는다.

## 가을밤의 동화 같은 순간

성남시민들의 도심 속 쉼터,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는 9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미디어 퍼포먼스 <시네 포레스트Cine Forest: 동화동화>가 메인 콘텐츠로 펼쳐진다. 중앙공원의 숲을 하나의 거대한 열린 극장으로 삼아, 프로젝션 매핑과 AI 음향 기술 그리고 70여 명의 오케스트라와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1,000명의 합창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마치 한 폭의 진경산수화를 그려 내듯 미디어로 그려 낸 진경眞景의 파노라마를 담은 이진준 총감독의 미디어 아트 신작이 중앙공원의 울창한 숲을 캔버스 삼아 생생하게 펼쳐지고, 여기에 중앙공원의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고 분석해 AI 알고리즘으로 창작해 낸 교향악과 추억의 영화 음악들이 더해져 관람객들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익숙한 일상의 공간이 미디어 아트와 미디어 심포니를 만나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환상과 마법,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기묘한 경험을 선사한다.

<시네 포레스트: 동화>는 단순히 보고 듣는 공연을 넘어, 숲에 머물며 나뭇잎의 움직임과 바람 소리까지 온몸으로 느끼는 입체적인 경험을 통해 기술과 자연,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의 서사로 엮이며 가을밤 동화와도 같은 순간이 될 것이다.

## 첨단기술의 도시, 성남을 태그(#)하라!

AI부터 게임까지 첨단기술의 도시 성남의 매력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도 기다린다. 9월 20일(토)과 21일(일),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은 AI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 체험,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넥슨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와 함께 모바일 A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AI 플러스 체험'을 비롯해, '인터랙티브 아트워크 'AI 쉼터' 등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AI 기술로 지역사회 문제에 해결책을 제안하는 'AI 경진대회'와 초등학교 대상 '독서사생대회'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9월 19일(금)과 20일(토)에는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게임 복합문화축제 'GXG 성남게임문화축제'가 판교역 광장에서 열리고, 27일(토)과 28일(일)에는 VR과 AI,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4차 산업 체험존'과 '스마트빌리지 체험존' 등이 탄천에 펼쳐진다.

# SEONGNAM

# FESTIVAL

**TECH & LIFE**

**탄천-탄천종합운동장 앞 | 9.27.(토) - 9.28.(일)**

- 카약 체험
- 버스킹, 푸드존, 씬터 등
- (협력사업) 드론 라이트 쇼, 뮤직페스티벌, 4차산업-스마트 빌리지 체험존, 글로벌 진출기업-자매결연도시 홍보관, 성남푸드 홍보 및 판매관,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광장도서관

**TECH & GAME**

**판교역광장 등 | 9.19.(금) - 9.20.(토)**

- (협력사업) GXG 성남게임문화축제
- 버스킹

**ARTS & LOCAL**

**희망대근린공원 | 9.27.(토) - 9.28.(일)**

- 지역예술인 공모선정작 공연
- 시플러스 체험(AR놀이터, 예술체험 등)
- 버스킹, 푸드존, 씬터 등
- (협력사업) 업스케일링성남커뮤니티, 시민제작 미디어 아트

**ARTS & TECH**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 분당구청 잔디광장 | 9.19.(금) - 9.21.(일)**

- 오프닝 세리머니
- 메인 콘텐츠 <시네 포레스트: 동화<sup>THE</sup>>
- 인터랙티브 아트워크
- 시플러스 체험(AR놀이터 등)
- 버스킹, 푸드존, 씬터 등
- (협력사업) AI 경진대회, 독서사생대회

- 성남종합운동장: 드론 라이트 쇼+뮤직페스티벌, 4차산업 체험존, 유소년드론축구대회, 독서골든벨
- 하이테크밸리: 버스킹, (협력사업)청년예술단공연
- 위례스토리박스: 위례생활문화축제
- 성남시청: 성남청(소년)청(년)페스티벌
- 성남아트센터: 특별기획전, 지역예술가교류전, 청소년교향악페스티벌
- 울동공원: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성남미디어센터 야외상영
- 성남물빛정원: 체임버오케스트라 공연
- 벌말공원: 파이팅성남콘서트
- 중원유스센터: 청소년교향악페스티벌

**성남 예술가와 시민의 상상력, 축제를 만나다**

성남페스티벌 기간에는 성남에서 활동해 온 예술인과 시민들이 자신의 예술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회가 마련된다. 희망대근린공원에서는 올해 페스티벌을 위한 공모 프로그램을 거쳐 선정된 지역예술가들의 공연(9월 27일~28일)과 성남미디어센터 AI 영화학교 참여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민제작 미디어 아트', 예술기술융합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작자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9월 27일~28일)가 열린다. 시민 생활문화 동호회의 '사랑방문화클럽축제'(9월 27일 울동공원), 입주작가들의 오픈스튜디오와 체험프로그램을 만나는 '위례생활문화축제'(9월 20일 위례스토리박스), 시민이 직접 기획한 소규모 영화제 '성남미디어센터 야외 상영'(9월 27일 울동공원) 등 시민과 함께하는 크고 작은 예술 프로그램을 마주할 수 있다.

**다시 찾아온 축제의 즐거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화제의 프로그램들도 다시 찾아온다. 지휘자 금난새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공연 '뮤직페스티벌'(9월 21일 성남종합운동장, 28일 탄천)과 가수 김범수, HYNN<sup>1</sup>박혜원이 함께하는 '파크 콘서트'(9월 27

일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드론 라이트 쇼'(9월 21일 성남종합운동장, 28일 탄천)가 올해에도 성남의 가을밤을 음악과 빛으로 수놓는다. 특히 드론 라이트 쇼는 2년 연속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이벤트다. 3,000대의 드론이 성남의 하늘에 장관을 연출하며 축제의 클라이맥스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탄천 한가운데서 즐기는 카약 체험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다. 9월 27일(토)과 28일(일) 이틀간 탄천 야탑교와 하탑교 일원에서 진행될 카약 체험은 도심 속에서 유유자적 즐기는 수상 레포츠의 매력을 한껏 맛보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도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먹거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존과 버스킹 공연이 축제 현장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또 다른 재미를 더한다.

성남페스티벌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다. 올가을, 매일 지나던 공원, 산책로, 거리에서 마주하게 될 특별한 순간들.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넘어 우리의 감각과 기억을 잇는 미래를 향한 여정의 시작, 그 마법과 같은 순간으로 모두를 초대한다.

**성남페스티벌 세부 정보**

축제 공식 홈페이지 [www.snart.or.kr/festival](http://www.snart.or.kr/festival)  
인스타그램 @seongnamfestival

숲에서  
피어나는

미래예술을  
만나다

성남페스티벌  
총감독 이진준



인간과 자연,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새로운 감응의 언어를 모색해 온 미디어 아티스트 이진준. 그동안 인공지능<sup>AI</sup>, 증강현실<sup>AR</sup>,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sup>BCI</sup> 등 첨단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으로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온 그가 2025년 성남페스티벌 총감독으로 함께한다. 도심 속 공원을 낯선 마법의 공간으로 바꾸는 예술적 실험 <시네 포레스트: 동화<sup>동화</sup>>를 통해, 이진준은 '확장된 공간'이라는 미래의 감수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예술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감성이 교차하는 새로운 경계의 지점, 그가 펼쳐 낼 '미래예술'의 풍경을 미리 살펴본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 과장 사진 최재우

**성남페스티벌 총감독으로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성남페스티벌, 또 도시 성남의 어떤 점에 이 끌려 제안을 받아들이셨는지요?**

초청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는 '공간'이었습니다. 성남은 전통과 첨단 기술, 주거 공간과 자연이 교차하는 도시입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제 작업의 주요 개념인 '경계<sup>liminality</sup>'와도 잘 맞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죠. 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라는 점은 오랫동안 예술을 일상의 언어로 확장하고자 해 온 제 방향성과도 일치했어요. 저는 '공간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를 예술의 출발점으로 삼아 왔는데, 중앙공원의 숲을 무대로 삼고 도시의 빛·소리·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도시와 자연, 사람과 기술이 하나 되는 새로운 감각적 서사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이번에 만날 성남페스티벌 메인 콘텐츠는 어떤 작품인지요? 작품의 연출 포인트와 주목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메인 콘텐츠 <시네 포레스트: 동화<sup>동화</sup>>는 중앙공원의 숲 자체를 거대한 '열린 극장'으로 전환하는 대형 미디어 퍼포먼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시네 포레스트<sup>Cine-Forest</sup>'라는 개념을 통해 숲의 수목을 360° 초고해상 프로젝션 매핑 캔버스로 삼게 되죠. 나뭇잎의 결, 바람의 흐름까지 영상 서사에 넣어 관객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더라도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출합니다. 초고해상 프로젝션이 수목 표면과 지형의 굴곡을 따라 입체적으로 투사되면서 나무 하나하나가 스크린이 되고, 나뭇잎의 움직임과 바람 소리까지 이야기에 녹아들죠. 공원을 거니는 관객은 사방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림 속에 빨려 들어가듯 몰입하게 됩니다.

70여 명의 오케스트라, 성남 시민으로 구성된 1,000명의 합창단도 참여합니다. 이들은 관현악과 전자음악으로 표현된 새로운 형식의 교향곡 '미디어 심포니'를 연주할 예정인데, 이 미디어 심포니는 바람과 곤충 소리와 같은 숲의 자연음을 채집하여 AI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작곡한 음악과 추억의 영화 음악을 예술가가 하나의 서정적인 서사 구조로 엮어 냈습니다. 인간의 창작 역량과 해석을 바탕으로 AI 기술의 예술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시도라는 점에서, 단순한 AI 작곡이나 기술 시연 공연과는 차이가 있죠. 기술과 자연,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의 유기적 서사로 엮이면서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이 겹겹이 어우러지고, 관객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숲을 경험하며 함께 입체적 동화를 완성해 갑니다. 기술, 인간, 자연, 도시가 별빛 아래 공명하며 살아 움직이는 이 퍼포먼스는 고정된 조형물이 아닌 행위 기반 공공미술이자, 미디어 심포니 시대의 서막을 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품의 캔버스로서, 중앙공원 야외공간의 어떤 점에 주목하셨나요?**

도심 속 계곡처럼 완만한 경사와 자연 수목이 어우러진 공간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추구하는 가치는 화려한 기술의 시연이나 융합 그 자체가 아닌, 기술을 통해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야기를 질문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예술’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는 이 지형적 깊이를 이용해 층위적 사운드 스케이프 soundscape와 미디어 캔버스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가을밤, 공원 언덕 위로 펼쳐지는 열린 극장을 산책하듯 거닐 때마다 새로운 숲의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성남페스티벌은 중앙공원의 메인 콘텐츠 외에도 분당구청 잔디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축제의 각 공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마법과 과학’입니다. 공원과 광장 같은 일상의 공간들이, 현실 위 ‘마법과 과학’이라는 두 번째 층을 입으며 낯선 환상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합니다. 관객은 각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마법 주문을 만나고, 그 감각의 전환들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마법 지도’로 엮어 냅니다. 과학 기술과 예술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이 작은 환상들이 일상 속 마법 같은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기술은 감각을 확장하고 예술은 의미를 부여한다**

**경영대학에서 다시 미술대학으로, 또 예술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의 여정을 이어 오셨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자양분이 되어 주었는지요?**

경영학은 체계 시스템적 사고를, 조소와 미디어 아트는 물질성과 서사에 대한 감각을, 예술철학은 존재론적 질문과 비판적 시선을 안겨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단순히 ‘작품’을 만들 기보다 그것이 총체적인 ‘경험’이 되는 ‘설계’에



메인 콘텐츠 <시네 포레스트: 동화>가 펼쳐질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언덕 전경. 도심 속 계곡처럼 완만한 경사와 자연 수목이 어우러진 이곳에, 이진준은 지형적 깊이를 이용한 층위적 사운드 스케이프와 미디어 캔버스 공간을 설계했다

주목하게 되었어요.

경영학은 복잡한 사회·경제적 흐름을 관계의 맵map으로 그리는 사고의 틀을, 조소와 미디어 아트는 추상적 네트워크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손과 몸을 길러 주었습니다. 예술철학은 그 형식들이 무엇을 드러내고 또 무엇을 감추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했지요. 이 세 축이 만나면서 제 작업은 하나의 오브젝트object나 매체에 머무르지 않고, 관객·환경·기억·데이터가 상호 작용하는 총체적 경험의 ‘설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작품을 ‘제작’한다기보다, 감각과 서사, 기술이 만들어 낸 생태계를 ‘정원사처럼 가꾸는cultivating’

예술가입니다. 그 생태계 안에서 관객 스스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기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과 경계를 오랫동안 탐구해 오시면서, “예술과 기술은 별개 분야가 아니라 단일한 이해를 추구하고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융합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증강된 공감augmented empathy’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고 재배치하며, 예술은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죠. 이 둘이 만날 때 우리는 타인의 경험, 나아가 비인간 생

명, 인공지능, 심지어 지구 환경까지도 내면에  
이입할 수 있는 새로운 감수성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시청각적 감탄을 넘어서, 서로의  
입장을 체험하며 더 나은 공존 방식을 모색하  
자는 윤리적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예술과 기  
술의 융합은 인간-기계-자연 간의 감각적·정서  
적 간극을 좁히고, 확장된 공감 능력을 바탕으  
로 사회적 상상력을 키워 가는 데 목적이 있  
죠. 저는 오랫동안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질  
문 아래 서로 다른 세계의 경계를 탐구해 왔는  
데, 공감이란 그런 세계들이 교차하는 지점입  
니다. 결국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추구하는 가  
치는 화려한 기술의 시연이나 융합 그 자체가  
아닌, 기술을 통해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야기  
를 질문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예  
술'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화, 비디오, 실험극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  
업은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형  
식을 찾기 위한 과정일 텐데요, 원하는 답을 얻어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완전히 도달했다기보다는 현대미술의 최전선  
에서 여전히 실험 중입니다. 프로젝트마다 매  
체를 달리하며 그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할 정확  
한 '언어'를 찾으려 하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매체의 미학을 조금씩 이해하고 감각을 확장  
하게 됩니다. 이런 감각적 지평을 확장해 온 역  
사가 곧 사유의 확장을 견인해 왔다고 느끼죠.  
정답을 찾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예술  
가가 되고자 해요.

**감독님의 예술 세계에서 '경계공간'과 '총체성'은  
지나칠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총체성이란 '소리와  
공간 경험, 시청각과 촉각까지 어우러진,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한순간의 경험'이고, 이를 담아낸 미  
래 예술을 추구한다고 하신 바 있죠. 성남페스티  
벌에서도 그 감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시네 포레스트: 동화(動花)>는 제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총체적 경험(total experience)'과  
'경계 공간 경험(liminoid experience)'을 현장에 불어  
넣는 실험입니다. 먼저 총체성 측면에서는, 기  
존의 시청각 중심 공연을 넘어선 다층적 감각  
을 동시에 호출합니다. 시네-포레스트 프로젝  
션이 숲을 360° 화면으로 바꾸면, 별빛과 나  
뭇잎의 흔들림, 저녁 공기의 온도차와 흙냄새  
까지 하나의 서사적 레이어로 작동하죠. 관객  
은 앉아서 '관람'하기보다 걷고, 숨 쉬며, 자신  
의 심장 박동과 발소리까지 작품에 투영되는  
총체적 경험 속에 들어섭니다. '보는 것'과 '듣  
는 것' 사이, 물리적 몸과 가상 이미지 사이의  
경계는 의도적으로 흐려지게 되죠.

경계 공간 경험은 이러한 경계가 무너지는 찰  
나, 즉 현실과 환상의 틈새에서 발생합니다. 밤  
이 내려앉는 전이(transition)의 시간, 자연 음향이  
AI 알고리즘과 뒤섞여 재구성되는 순간, 그리  
고 추억의 영화 음악들을 통해 관객은 숲 속  
열린 극장에서 저마다 기억의 여행을 떠납니  
다. 이때 공간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과거  
와 미래, 자연과 기술이 중첩된 잠정적·과도기  
적 무대가 되죠. 관객은 익숙함과 낯설 속에서  
스스로 존재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그 지점에

정답을  
찾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서 경계 공간 특유의 호기심과 설렘이 피어나도록 연출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퍼포먼스는 기술·자연·인간이 실시간으로 상호 종속·확장하는 동적 생태계를 통해 '한순간만 존재하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총체적·경계적 경험'을 지향합니다. 그 순간 시민들은 관객이자 참여자가 되고, 숲은 극장인 동시에 오케스트라이며, 도시의 평범한 밤은 단 한 번 피어나는 동화의 장면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총체성과 경계 공간의 오늘날 버전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예술이 어떤 접점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과 협업하는 창작의 동반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으며, 데이터 편향·저작권·책임 문제 등을 설계 단계에서 다루는 윤리적 큐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과한 기대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죠.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물감을 만지는 기분으로 AI를 마주합니다. 마치 새로운 장난감처럼, 설렘과 더불어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의 폭을 넓혀 주죠.

앞으로 예술과 AI의 접점은 인간의 개념적 상상력, AI의 계산적 알고리즘, 자연과 도시의 물

리적 조건, 그리고 관객의 참여가 서로를 울리며 확장된 공감을 만들어 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 접점을 이해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에 담긴 '비어 있음'을 읽어 내는 인간 고유의 인문학적 감수성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스스로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소개한다면, 무엇으로 불리고 싶으신지요?**

동아시아 문인<sup>literati</sup>의 전통을 잇는 '예술가 학자<sup>artist-scholar</sup>'입니다. 특히 데이터를 가꾸어<sup>cultivating</sup> 인간과 자연 그리고 과학 기술을 융합해 독특한 공간 경험<sup>liminoid</sup>을 만드는 정원사, 데이터 가드니스트<sup>Data Gardenist</sup>라 표현하고 싶네요.

**예정된 주요 작업, 또 예술가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14년 만의 국내 개인전이 8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성북동 BB&M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인간의 흔적 데이터를 활용한 신작들의 첫 공개를 통해 최근 지드래곤,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와 협업한 우주 프로젝트 '굿모닝 미스터 지드래곤'의 배경을 전달하고자 해요. 여름방학과 안식년 기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세인트존스 칼리지<sup>St. John's College</sup>와 엑서터 칼리지<sup>Exeter College</sup>, 일본 도쿄예술대학교 방문교수로 연구하며 미뤄 왔던 책 집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AI 등 새로운 융합기술의 활용을 기반으로, 오케스트라 편성에 전자 악기와 데이터 소니피

케이션<sup>data sonification</sup>, 몰입형 영상 디자인을 접목한 미디어 심포니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인데요, '거인'이라는 주제 아래 인간·자연·기계 서사를 미디어 교향곡 형태로 담은 첫 레퍼토리를 준비 중입니다. 성남페스티벌 <시네 포레스트: 동화<sup>동화</sup>>에서는 제가 AI를 이용해 작곡한 '쓰러진 거인'을 최초 시연하게 되죠. 미디어 아트는 결국 '공연'의 형태로 귀결되리라 봅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 AI의 도래로 더욱 빨라지고 있죠. 그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성남에서 이 새로운 변화를 보여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네 포레스트: 동화<sup>동화</sup>>가 지속 가능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는 결국 참여자의 손에서 완성되지요. 성남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사유할 수 있기를 바라시지요?**

공기·빛·소음처럼 평소 도시 속 '배경'으로만 존재하던 요소들이, 예술적 매개를 통해 마음속 '진경<sup>眞景</sup>'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이를 통해 우리가 호흡하는 공간이 살아 있음을 느끼고, 도시 생태와 타인에 대한 감각적 연대를 떠올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 시대의 기술에 대한 감탄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지금, 기술이 빚어낸 새로운 예술을 공감각적으로 체험하며 위로받길 바랍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회가 아닌 '새로운 예술'을 마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Jinjoon Lee, Wandering Sun, 2024,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Unreal Engine 5, AI algorithm, NUS, Earth observation data, 4x77m, 2.69m, O.A.S.

세계의 예술+기술 융합 축제

## 도시의 표면을 수놓는 빛, 내면을 울리는 진동

현대 도시는 거대한 예술의 전시 공간이자 무대이다. 건물 외벽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가상의 파도가 치고, 밤이 되면 프로젝션 매핑이 도시의 표면을 춤추게 한다. 동시에, 그 눈부신 표면의 스펙터를 너머에서는 도시의 철학과 정체성이 숨 쉰다.

그 이면을 드러내고 약동하는 표면과 접목하여 또 다른 스펙트럼을 펼치는 장이 있다. 바로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축제이다. 이들이 펼치는 새로운 접면은 도시의 겉과 속을 동시에 비추는 특별한 순간이다. 도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축제는 한편으로는 화려한 볼거리로 도시 브랜드를 빛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민의 내면적 경험과 공동체 의식을 일깨운다.

글 **허대찬** 미디어문화예술채널 앨리스온 디렉터

미디어 아트 및 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큐레이터, 교육자로서 국내 미디어 아트 활동의 순환 및 아카이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미디어문화예술채널 앨리스온 [aliceon.co.kr](http://aliceon.co.kr) 편집장, 게임 연구 집단 더플레이 대표, 한국디지털인사학회의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필자가 2022년 <아트뷰>에서 ‘도시의 증강된 문화적 표면으로서의 미디어 파사드와 도시 브랜딩’을 탐구했던 시선 위에, 2025년의 관점으로 세계 곳곳의 예술+기술 융복합 축제들을 살펴보려 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맥락 속에서 빛과 데이터, 감성과 철학으로 현대 도시의 얼굴과 속내를 그려 내고 있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기술과 문화가 춤추는 오스틴의 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매년 3월 열리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는 음악과 영화, 기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융복합 페스티벌의 대명사이다. 1987년 음악 축제로 출발한 이 행사는 이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수십만 명이 찾는 글로벌 행사로 성장했다. 축제 기간에 도시는 거대한 미래 실험실이 되고 거리와 공연장, 갤러리들은 혁신적인 브랜드 부스

와 예술 설치물로 가득 채워진다. SXSW는 오랜 호흡의 맥락과 그렇게 쌓아올린 풍경을 토대로 수십 년간 오스틴을 글로벌 무대에 올려 놓으며, ‘음악·영화·기술 분야의 다음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도시의 위상을 높였다. ‘Keep Austin Weird’라는 도시 모토답게, 이 축제는 비전과 실험 정신으로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SXSW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단연 인공지능<sup>AI</sup>와 실감기술<sup>XR</sup>이 전면에 떠오른다. 2024년 SXSW에서는 ‘올해 가장 뜨거운 주제는 AI’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매일같이 생성형 AI와 미래 미디어에 관한 세션이 열렸다. 관람객들은 XR 전시관에서 메타 퀘스트·애플 비전 프로와 같은 최신 헤드셋을 쓰고 몰입형 VR/AR 경험을 체험했고, 가상의 빛과 소리가 어우러진 360° 공연은 관객을 황홀경으로 이끌었으며, 가상 K-Pop 공연에서는 눈앞의 홀로그램 아이돌을 피하려 한 걸음 물러설 만큼 현실

같은 경험을 선사했다. 세계 각국의 문화·기술 대표단이 팝업 하우스를 열어 자국의 혁신 문화를 선보였고, 한국 역시 한국공동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참여자들과 접점을 형성했다. 이러한 글로벌 교류의 장은 SXSW를 세계 창의 인재들의 만남터로 부각시키며 도시 브랜드에 힘을 더했다. 이렇게 SXSW는 최첨단 기술과 창의적 예술,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현대 도시 축제의 복합적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쇼와 거리 한복판의 개방형 토론 세션, 전 세계의 기술 및 문화예술 대표 주자들과 관객이 어우러지는 네트워킹 파티까지, SXSW의 풍경은 오스틴이라는 도시의 창조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로서 기능한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오스트리아 린츠  
예술·기술·사회가 빛어낸 미래도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페스티벌은 예술+기술의 융복합 축제의 대명사이다. 한때 철강 산업으로 부흥하다 산업 구조 개편으로 쇠락했던 오스트리아의 소도시 린츠Linz를 활성화시키고 미디어 아트의 메카로 거듭나게 한 성공 사례이자 핵심 원동력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페스티벌이다. 1979년 첫 시작 이래 4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이 축제는 ‘예술·기술·사회’라는 키워드 아래 지역의 역사성과 현대적 감각을 잇는 콘텐츠로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했고, 예술+기술의 실험 정신을 도시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서 부상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5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포스터

2020년대 들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AI와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쟁점을 예술로 사유하며 사회 속 기술과 예술의 관계망과 그들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2024년 축제의 주제는 ‘HOPE - who will turn the tide’였는데, 기술 발전 속의 희망과 그 이면의 절망을 역설적으로 조망하며 복합적인 미래의 탐색을 모색하는 철학적 물음을 던졌다. 올해 페스티벌의 주제는 ‘PANIC - yes/no’로, 오늘의 시스템 충격과 긴급성, 불안, 변혁의 가능성과 집단적 감정 대응에 대한 탐구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이처럼 그해의 주제 아래, 세계 100여 개국에서 모인 아티스트·과학자·기술자·기획자들은 첨단 작품과 담론을 선보인다. 관객은 로봇 팔과 함께 춤추는 퍼포먼스나 AI와 관객의 대화로 완성하는 생성 예술 작품 등을 통해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한다. 축제 기간 린츠의 도심은 박물관과 성당, 공장 지대까지도 전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시민들 역시 자발적 참가자로서 도시를 활보한다. 페스



음악과 영화, 기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융복합 페스티벌 SXSW

티벌의 상설 기관인 퓨처랩Futurelab은 자체 개발한 기술력을 축제에서 펼치는데, 하늘을 수놓는 거대한 드론 쇼, 공간 전체를 아우르며 의학·역사·문화 콘텐츠를 제안하는 몰입형 시스템은 이들이 선도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관광청 등 주요 도시 기관과 협력, 시민과 여행자가 직접 자기 도시를 3D 스캔해 공유하는 실험적 시도 역시 진행했다. 과거의 산업 도시 린츠가 예술·기술·혁신의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축제를 통한 도시 이미지 재창조 그리고 시민참여와 시민의식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아스 일렉트로니카의 불빛이 떠오를 때, 린츠의 밤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경이와 성찰로 그곳에 자리한 많은 사람들을 연결한다.

### 재팬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일본 도쿄

#### 대중과 예술이 만나는 디지털 문화의 축제

일본 문화청이 주최하는 일본 미디어 예술제Japan Media Arts Festival는 예술에서 서브컬처까지 다채로운 문화예술 스펙트럼을 아우른다. 1997년 시작되어 매년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는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라 불리는 기술 기반 예술 영역부터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만화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작품 공모와 시상을 진행하며, 일본이 자랑하는 예술 지형을 펼친다. 한쪽 전시장에서는 관객의 뇌파를 실시간 분석해 영상으로 투사하는 인터랙티브 아트가 펼쳐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의 감독과 관객이 소통하는



Sun and Moon Room, Sun and Moon Room Production Team [Japan], Interactive art, 25th Art Division Grand Prize (https://medarts.jp)

다채로운 문화예술 스펙트럼을 선보이는 재팬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토크쇼가 열린다. 예술가와 팬덤이 함께 만드는 축제라는 점에서 관객 참여가 특히 돋보이는데, 어린 학생부터 업계 전문가, 코스프레 차림 젊은이들까지 각양각색의 관객이 모여들고 경계 없는 창작 문화의 장이 펼쳐진다. 수상작 전시는 도쿄 국립신미술관 등 유서 깊은 문화 시설뿐 아니라 거리의 미디어 보드나 지하철 역사 등에서도 이루어져 도시 공간과 일상 속 미디어 아트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이러한 노력은 도쿄를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도시 브랜드로 부각시키는 데 기여한다. 정부 주도 행사인 만큼 공모와 시상을 통한 신진 예술가의 발굴·지원 역시 활발해서,

페스티벌 출신 작가들은 이를 기반으로 꾸준히 국제 무대에 진출하며 일본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위상에 기여하고 있다.

### MUTEK 캐나다 몬트리올 본 축제, 비정기 세계 순회 축제

#### 전자 음악과 디지털 창의 축제

뮤텍MUTEK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전자 음악·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이다. 2000년 첫 행사 이래 몬트리올을 비롯해 멕시코시티·바르셀로나·도쿄 등 여러 도시에서 글로벌 시리즈로 확장 행보를 걸어왔다. 그중 본고장인 몬트리올 뮤텍은 매년 여름 살아 있는 전자 사운드와 실시간 비주얼 아트의 향연을 선사하며 도시 전체를 실험적 클럽이자 갤러리로 변모시킨다. 새벽까지 이어

지는 AVAudio Visual 공연, 낮 시간의 워크숍과 심포지엄 등 예술가·기술 개발자·관객이 함께 어울리는 몰입형 플랫폼이기도 하다. 본디 몬트리올이라는 도시 자체가 재즈 페스티벌 등 활발한 문화 행사로 유명한데, 뮤텍의 존재는 여기에 첨단 예술 도시의 이미지까지 더했다. 몬트리올이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에 선정되는 데엔 뮤텍과 같은 축제들의 공헌도 컸던 셈이다.

뮤텍의 융합 포인트는 '소리와 빛의 결합'이다. 한밤중 공연장에서는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통해 전자 음악가들의 즉흥 라이브가 울려 퍼지고, 무대 위 스크린과 레이저 조명은 음악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는 추상 비주얼을 쏟아 낸다. 관객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눈



Photo & Art of Japan Media Arts Festival, MUTEK Montreal 2024 (montreal.mutek.org)

앞에서 생성되고 변형되는 데이터 시각화의 세계에 온몸으로 빠져든다. 이처럼 라이브 코딩과 실시간 영상 합성 등의 기술이 예술 표현과 만나 새로운 형태의 공연 예술을 만들고 알리는 데 뮤텍의 역할이 컸다.

뮤텍은 신진 예술가들의 플랫폼이기도 하다. 혁신적인 사운드 아티스트들이 첫 무대를 꾸미고 세계로 발돋움하는 통로가 된다. 관객 참여 측면에서는, 청중이 직접 모듈러 신시사이저 실습을 해보거나, VR 설치 작품 속에 들어가 가상공간을 거니는 등 능동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축제의 일부 행사는 공원이나 옥외 광장에서 열려 도시 공간 자체가 무대가 된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도시 풍경은 색다른 소리와 이미지를 입히는 공공예술의 장이 되며, 시민들은 익숙한 거리가 얼마나 창조적인 에너지로 가득 찰 수 있는지 체감한다. 뮤텍은 이렇듯 몬트리올을 디지털 창의성의 허브로 각인시키고 있다. 전자 음악 애호가부터 미디어 아트 전문가까지 다양한 방문객들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이에 힘입은 몬트리올은 다양성과 기술 예술이 숨 쉬는 도시로 국제적 위상을 이어간다. 뮤텍의 밤을 채우는 전자음과 스크린의 추상 형상들은, 몬트리올이라는 도시가 품은 혁신의 리듬과 맥박일 것이다.

#### 축제, 도시의 가치를 각인시키다

SXSW, 아스스 일렉트로니카, 재팬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뮤텍.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탄생했지만, 모두 예술과 기술의 조우가

만든 도시의 새로운 표정을 보여 준다. 축제가 열리는 며칠 동안 도시는 마치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가 된 듯 화려하게 빛나지만, 그 빛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와 도시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예술가와 공학자, 관객과 시민이 한데 어울려 만들어낸 집단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현대 도시가 직면한 쟁점들을 놀이와 예술로 풀어내고 함께 미래를 상상한다. 도시 브랜드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축제들은 단순한 관광 이벤트를 넘어,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상징적 미디어로 작용한다. 오스틴은 SXSW로 창조적 스타트업 도시의 이미지를, 린츠는 아스스 일렉트로니카로 예술·기술 선도 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국내의 경우 서울시가 주최하는 기술과 예술 융합 표방 축제 서울라이트<sup>SEOUL LIGHT</sup>, 기술 기반의 창제작 표방과 시민 접점 형성을 지향하는 파라다이스 아트 랩 페스티벌<sup>Paradise Art Lab Festival</sup> 등 지자체와 민간 운영 축제도 풍부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비디오 아트에서 시작해 테크와 예술의 연계 활동으로 확장한 'OK. Video-인도네시아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디지털 아트와 전통융합을 내세우는 태국 최대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TDAF<sup>Thailand Digital Arts Festival</sup>,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표방하며 갖출범한 하이난 동남 테크놀로지&아트 페스티벌<sup>Hainan Southeast Technology & Art Festival</sup> 등 다양한 축제를 만날 수 있는데, 기술과 연계한 페스티벌이 각자의 도시에서 밝게 명멸하며 활기를



아스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순환시키는 장면은 그 유효성과 당위성을 한층 강조한다. 그러나 이 축제들의 진정한 가치가 비단 외부에 드러나는 표면의 반짝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막이 내리고 축제의 불빛이 사그라든 뒤에도, 도시에 남는 것은 내면에 새겨진 변화이다. 축제를 통해 촉발된 창의적 영감은 지역의 스타트업을 탄생시키고, 시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예술가와 과학자, 일반 대중이 소통한 경험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참여형 도시문화의 토대를 쌓는다. 한때 무심히 스쳐 지나던 빌딩 외벽이 축제 기간에 눈부신 예술의 캔버스로 변모했다면, 이후 그곳을 지나는 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빌딩의 삭막한 회색이 아닌 가능성의 색채가 어른거릴 것이다. 현대의 도시는 이렇게 축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확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예술+기술 축제들을 서정적이고 관조

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떠오르는 한 이미지가 있다. 도시라는 생명체의 맥동이다. 낮에는 분주히 돌아가는 경제와 시스템의 도시가, 밤이 되면 예술과 기술의 불빛 속에서 숨겨 둔 꿈을 드러내 보인다. 빛나는 도시의 표면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지만, 그 진동은 마음 깊숙이 울려 퍼져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기술, 도시와 삶의 조화를 숙고하게 만든다. 축제의 시간 동안 우리는 도시의 겉모습과 속마음 모두와 조우하고, 그 경험은 도시에도 영감을 준다. 우리의 도시들이 앞으로 얼마나 감각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도시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세계의 선례들은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도시 표면에 새겨지는 찬란한 예술의 빛과 그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창의와 공동체의 열기가 만나, 언젠가 우리 도시도 고유한 미래의 얼굴을 빚어내길 바란다. 결국 도시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커지는 순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법이니까.



# 성남페스티벌

T.A.G. SEONGNAM

T.echnology  
A.rts  
G.ame

2025  
9.19.-9.28.

중앙공원 일원, 희망대근린공원,  
탄천 등 성남 일원

주최 성남시  
주관 성남문화재단  
협찬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문의 031-783-8000

# VIEW

## 미리보기

국립무용단 <사자의 서>  
연극 <킬 미 나우>  
필하모닉 스트링 콰텟 베를린 내한 공연  
파크 콘서트·피크닉 콘서트  
2025 지역예술가교류전 <감각퍼즐>  
여름특별기획전 <BE CHILD - 아이처럼>

## 다시보기

야쿠프 흐루샤 & 밤베르크 심포니, 김봄소리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 인터뷰

더블베이스스트 유시현

P

R

E

V

I

E

W

국립무용단 &lt;사자의 서&gt;

## 삶의 본질에 다가서기

국립무용단의 <사자의 서>가 8월 30일 성남아트리움을 찾아온다.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불교 경전인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2024년 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김종덕이 부임 후 처음 선보였던 안무작으로, 지난해 초연에 이어 올여름 성남에서 관객을 만나게 됐다.

글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국립무용단



『티베트 사자의 서(死者的書)』는 ‘제2의 붓다’로 꼽히는 티베트 불교의 고승 파드마삼바바 Padmasambhava가 8세기에 저술한 경전이다. 사후 세계를 경험한 승려들의 증언을 토대로 썼다고 알려졌다. 원래 티베트어 제목은 ‘바르도 퇴돌(Bardo Thodol)’, 즉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바르도)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퇴돌)’이라는 뜻이다. 생전에 깨달음을 이르지 못한 채 죽음을 앞두고 된 사람을 위로하는 한편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수행할 것을 권한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1927년 영어로 번역 출판된 이후 서구 종교학, 심리학,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유명하다. 국립무용단이 지난해 초연한 <사자의 서>는 김중덕 예술감독이 명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대만 현대미술 작가 차웨이 차이의 <바르도>에

서 영감을 받아 안무한 작품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바르도>는 『티베트 사자의 서』를 소재로 한 멀티미디어 작품이다. 평소 제의와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안무를 해 온 김중덕 감독이 주목한 것은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단계’라는 경전의 핵심 주제다. 이를 토대로 김 감독은 음양의 조화와 변화를 통해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발전한다는 태극 사상을 작품 뼈대로 삼았다. 태극의 홍색과 청색 면은 서로 단절된 듯하지만 하나로 수렴되고 순환하는 구도를 띤다. 삶과 죽음 또한 단절이 아닌 순환과 보완의 관계로 보는 관점은 작품의 안무와 미장센에 깊게 투영돼 있다. 죽음은 수직적인 개념으로, 삶은 수평적인 개념으로 무대에 직조된 것이 대표적이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작품은 죽음 후 망자가 겪는 49일의 여정을 단계적으로 보여 준다. 1장

‘의식의 바다’는 죽음을 애도하는 제의로 시작한 뒤 저승사자가 등장해 망자를 사후 세계로 인도한다. 죽음의 강을 건너며 춤추는 망자의 독무와 죽음을 애도하는 살아 있는 자들의 웅장한 소리가 죽음과 삶의 대비를 강렬하게 보여 준다.

2장 ‘상념의 바다’에선 망자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소년기부터 장년기까지 차례로 전개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건의 환영에 사로잡혀 있는 망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삶을 회상하며 겪는 기쁨, 슬픔, 고통 등 수많은 감정을 담은 춤은 망자의 내면을 표현한다. 그리고 장례 절차 중 관의 훼손을 막기 위해 발로 흙을 밟는 ‘회다지’가 여성 군무로 재해석됐다. 마지막 3장 ‘고요의 바다’는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어려운 움직임의 반복을 통해 삶과 죽음이 연결돼 있다는 철학을 담았다. 삶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은 망자의 절제된 표정과 과장되지 않은 움직임은 깨달음의 단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승에 남은 이들이 49재를 마무리하는 장면은 관객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원동력을 찾으려 만든다. 이 작품은 관념적인 죽음을 소재로 한 만큼 관객의 직관적 이해를 위해 미장센에 신경을 많이 썼다. 무대디자이너 이태섭이 만든 무대는 바닥부터 양쪽 벽까지 삼면이 백색으로 채워지고, 장면에 따라 벽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회전한다. 여기에 야광 호스와 블랙 라이트를 활용해 죽음과 영혼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천장에서 바닥으로 투사되는 다양



한 이미지와 영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그리고 현대무용 안무가이자 무용음악 작곡가로 활동하는 김재덕이 1·2장, 거문고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황진아가 3장의 음악을 맡아 망자의 애절함과 사후 세계의 신비로움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전통 복식의 틀을 고수하면서도 치마의 긴 트임과 찢긴 듯한 끝자락으로 현대성을 가미한 의상도 아름다운 미장센에 기여했다.

초연 당시 이 작품은 국립극장 대극장인 해오름극장을 활용하다 보니 국립무용단 단원 50명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스펙터클로 선보였다. 하지만 올해 지역 순회공연을 위해 장식적이거나 반복적이었던 구성과 규모를 수정해 25명이 출연하는 버전으로 제안무했다. 삶에서 군더더기를 덜어냄으로써 본질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작품의 주제라는 점에서 투어 버전이야말로 김 감독의 처음 구상에 더 가까워졌는지도 모르겠다.

#### 국립무용단 <사자의 서>

일시 8월 30일(토) 오후 3시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031-783-8000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단계라면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P R E V I E W

### 연극 <킬 미 나우>

##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야기 방식

연극 <킬 미 나우>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들 조이와 그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아버지 제이크의 이야기이다. 이미 그 자체로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한 설정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단순히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아픔을 표면적으로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들이 지닌 보편적인 욕망과 좌절, 그로 인한 갈등을 섬세하게 그림으로써 초연 이후 여러 차례 공연되며 호평받은 작품이다.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사진 제공 (주)연극열전

연극 <킬 미 나우>의 처음과 마지막은 모두 욕조 장면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첫 장면에서는 아버지 제이크가 장애를 지닌 아들 조이를 욕조에서 씻기면서 아들의 육체적, 성적 성장을 알아채게 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들이 욕조 안에서 아버지 제이크의 안락사를 돕는 모습이 은유적으로 등장한다. 성적인 욕망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임을 생각할 때, 이 극에서 욕조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가장 극적이고 대조적인 삶의 순간을 보여 주는 장소가 된다. 적어도 이 욕조 안에서 삶과 죽음은 하나로 겹쳐진다.

조이가 친구 라우디와 즐겨 하는 좀비 게임 속에서 좀비에게 물려 자신도 좀비가 되기 직전, 사람들은 “킬 미 나우”라고 외친다. “나를 죽여 줘”라는 이 대사는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천적 장애를 지닌 아들 조이가 게임을 하면서 외치는 이 대사가 아버지 제이크에게는 “힐 미 나우”로 들린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신체적 장애를 지닌 조이의 발음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지만, 제이크가 나중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지속하는 대신 죽음을 택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오해는 어느 정도 극적인 복선의 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서도 ‘킬kill’과 ‘힐heal’의 의미가 교차한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과 치유하는 것은 분명 정반대의 행위이지만, 극의 마지막에 제이크의 죽음을 돕는 행위는 곧 그를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

아 있지 않게 도와주는 행위가 된다. 게임 속 좀비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킬 미 나우”를 외쳤던 것처럼, 제이크는 ‘좀비’ 같은 삶을 끝내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킬 미 나우”가 “힐 미 나우”와 겹쳐지는 순간이다. 연극 <킬 미 나우>는 주로 대조되는 것들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욕조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과 죽음의 순환, “킬 미 나우”가 “힐 미 나우”로 겹쳐지는 선택의 순간,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의 달라진 위치로 은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 바뀔 등, 서로 다른 지점에 위치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로 합쳐지거나 반대의 지점으로 가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인 ‘정상’과 ‘장애’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이번 성남 공연에서는 초연부터 함께해 온 이석준을 비롯해 배수빈, 최석진, 김시유, 이지현, 전익령, 이진희, 김지혜, 허영손 등이 참여해 먹먹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 연극 <킬 미 나우>

일시 9월 13일(토), 14일(일) 오후 3시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031-783-8000

## P R E V I E W

## 필하모닉 스트링 퀸텟 베를린 내한 공연

교향악의 심장,  
다섯 현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나다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연주자들이 더블베이스를 포함한 특별한 5중주 편성으로 성남아트리움 무대에 오른다. 드보르자크 5중주의 깊이 있는 재해석부터 파가니니의 화려한 명곡까지, 한 무대에서 현악 앙상블의 모든 매력을 남김없이 선보인다.

글 정소연 월간 <스트라드> 수석기자



현악 앙상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많은 콰르텟과 퀸텟이 각기 다른 시대정신과 미학을 반영하며 시대를 관통해 왔다. 그 맥락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들이 주축이 된 ‘필하모닉 스트링 퀸텟 베를린’은 오케스트라의 중후함과 실내악의 섬세함을 결합한, 이상적인

음향 세계를 구현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역사는 2007년 벨기에의 한 페스티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바이올리니스트 로마노 토마시니, 비올리스트 볼프강 탈리츠, 첼리스트 타티아나 바실레바는 곧 퀸텟 확장을 결심했고, 여기에 베를린필 동

료인 바이올리니스트 루이스 펠리페 코엘료와 더블베이스스트 구나르스 우파트니엑스가 가세하면서 지금의 편성이 완성되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더블베이스의 존재다. 대부분의 퀸텟과 달리 더블베이스를 통해 저음의 무게감을 극대화하고, 실내악 오케스트라의 축소판 같은 음향적 밀도를 창출한다. 다니엘 바렌보임은 이들의 사운드를 두고 “스트링 오케스트라만큼 풍부하면서도 트리오처럼 섬세하다”라고 평한 바 있다.

## 대담한 도전, 드보르자크를 다시 쓰다

성남아트리움 클래식 시리즈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의 중심은 단연 드보르자크 ‘현악 5중주 3번, Op. 97’이다. 본래 두 대의 비올라를 위한 작품인 이 곡은 이들에게 대담한 도전 과제다. 원곡의 첼로 파트를 더블베이스가 맡아 목직함 기반을 다지고, 비어 있던 제2비올라 파트의 성부를 첼로가 대신하는 대대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 도전에 대한 훌륭한 예습 사례가 바로 2011년 앨범 <N-Motion>에 수록된 Op. 97의 2악장 편곡이다. <올뮤직AllMusic>은 이 연주에 대해 “드보르자크의 최고를 보여 주며, 활동적이고 멋진 질감의 현악을 선보인다. 또한 이 앨범에서 때때로 놓쳤던 앙상블의 감성적인 측면을 보여 준다”라고 호평했다. 한 악장의 연주만으로 증명된 이들의 독창적인 해석이 이번 무대에서는 전곡으로 펼쳐진다.

1부에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한 호흡을 선

보였다면, 2부에서는 다섯 명 각자의 기교가 빛을 발한다. 비올리스트 볼프강 탈리츠는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로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기교를, 더블베이스스트 구나르스 우파트니엑스는 보테시니의 협주곡으로 목직한 악기의 화려한 변신을 선보인다. 첼리스트 타티아나 바실레바는 포퍼의 <스피닝 송>으로 서정성을, 바이올리니스트 로마노 토마시니는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으로 정열을 뽐어낸다. 여기에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등 친숙한 멜로디가 다채로움을 더한다.

이번 공연이 특별히 기대되는 이유는 이들이 실내악의 깊이와 대중적 즐거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무대에서 모두 잡아 내기 때문이다.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의 심장부인 이들은 드보르자크 5중주 같은 정통 레퍼토리의 밀도 높은 앙상블로 실내악 애호가들에게 장르 본연의 매력과 순수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동시에 <라 캄파넬라> <카르멘 환상곡>과 같은 화려한 솔로곡,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같은 친숙한 멜로디로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장벽을 허물고 어렵지 않게, 음악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정통과 파격, 깊이와 즐거움을 오가는 이들의 음악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관객의 귓가에 가장 선명한 울림을 남길 것이다.

## 필하모닉 스트링 퀸텟 베를린 내한 공연

일시 9월 20일(토) 오후 5시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031-783-8000

## P R E V I E W

## 파크 콘서트·피크닉 콘서트

## 가을밤, 음악으로 감성 충전

푸른 숲, 맑은 공기 그리고 최고의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야외 콘서트. 성남시를 대표하는 문화의 아이콘 파크 콘서트가 9월에도 두 차례 중앙공원을 찾아온다. 성남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소풍처럼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콘서트도 놓치지 말자.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 과장 사진 최재우

교외 어딘가로 멀리 떠나지 않아도, 널따란 푸른 공원에 앉아 수준 높은 공연 무대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바로 성남문화재단이 선보이는 파크 콘서트다. 잔디 광장과 인공 호수, 걷기 좋은 산책로 등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만끽할 수 있는 중앙공원에 자리한 야외공연장은 지휘자 장한나가 “해외

클래식 페스티벌에도 뒤지지 않을 멋진 공연장”이라 극찬했던 싱그러운 자연과 시설이 돋보이는 명소다. 무대를 둘러싼 계단식 객석 뒤편의 잔디 언덕은 완만한 경사로 편안한 공연 감상에 안성맞춤이며, 수도권 어느 곳에서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도 장점이다.

다채로운 장르와 최정상 출연진으로 매년 선물처럼 찾아오는 파크 콘서트가 지난 6월에 이어 9월에도 6일, 27일 두 차례 관객을 만난다. 9월 6일은 언제나 유쾌한 음악을 들려주는 원맨밴드 10CM, 국내 대표 여성 듀오 다비치가 주인공이다. 지난 3월 발매한 싱글 ‘너에게 닿기를’로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은 10CM는 7월 발매된 정규 5집을 전후해 단독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관객을 만나고 있다. 다비치 역시 이해리와 강민경 두 멤버의 뛰어난 가창력과 케미 아래 왕성히 활동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이어 가는 중이다. 9월 27일은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 김범수, 깊은 감성과 넓은 스펙트럼의 고음으로 사랑받는 HYNN<sup>박혜원</sup>의 차례다. 가창력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수들인 만큼 어떤 곡을 노래하더라도 관객의 마음 한구석은 절로 뭉클해질 터이다. 가을이 무르익는 9월 말, 두 명품

보컬이 들려주는 아름답고 진한 감성의 발라드를 놓치지 말자.

성남 수정구·중원구 시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콘서트는 9월 13일 을지대학교에서 모던 록 밴드 넬, 보이밴드 엔플라잉의 무대를 준비했다. 세대를 초월한 두 밴드의 음악이 강렬한 에너지와 낭만적인 감성이 공존하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모든 공연은 관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관람을 위한 입장 팔찌 배부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 입장 절차 확인이 필수다. 우선 파크 콘서트의 경우 무대 앞 계단석 400명, 잔디석 8,000명 기준으로 입장 팔찌를 배부한다.

피크닉 콘서트 역시 공연 당일 오전 11시부터 현장 상황실에서 입장 팔찌를 1인당 1개 배부 예정이다. 입장 및 좌석 관련 안내 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www.snart.or.kr)와 성남아트센터 공식 온라인 채널의 공지를 꼭 참고하자.



## 파크 콘서트

일시 9월 6일, 27일(토) 오후 7시  
장소 분당구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문의 031-783-8000

## 피크닉 콘서트

일시 9월 13일(토) 오후 7시  
장소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운동장  
문의 031-783-8000

P

R

E

V

I

E

W

2025 지역예술가교류전 &lt;감각퍼즐&gt;

## 지역을 잇는 감각의 조각, 예술의 지형을 짓다

성남큐브미술관은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성남의 문화와 예술가를 소개하고, 지역적 경계를 넘어 동시대 예술가들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 예술가들의 교류전시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예술적 고립을 극복하고 시대적 질문을 공유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으로서 의미를 담고 있다.

2025년에는 성남과 원주 두 지역을 잇는 문화예술 네트워크 속에서 세대와 지역, 매체를 가로지르는 네 명의 작가(박혜원, 윤지현, 정서인, 황미숙)를 소환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장소와 삶의 궤적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고민과 실천을 공유하고, 각자의 매체와 조형 언어로 감정, 기억, 존재를 탐구하며 삶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술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글 이수정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정서인, 제주바다, 2022, 장지에 화선지 콜라주, 채색, 향, 라이터, 97X145cm

<감각퍼즐>은 퍼즐 조각처럼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하게 맞물리는 감각의 단위들을 펼쳐 보이며 '감각의 수집'과 '관계의 직조'라는 두 축을 따라 전개된다. 실경을 태운 흔적, 감정을 수집한 색면, 붉은 실로 직조한 기억, 흙이 품은 대지의 호흡처럼 이질적인 재료와 감각은 충돌과 연결을 반복하며 하나의 감각적 지형을 이룬다.

정서인과 윤지현의 작업은 감정을 기록하고 시간을 기억하며 사라짐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창조하는 '감각의 수집'에서 맞닿는다. 정서인은 불이라는 비정형적 도구를 통해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시각화하고, 태운 한지를 중첩하고 조합하여 기억과 감정이 투영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낸다. 윤지현은 얇은 유화 레

이어를 겹겹이 쌓아 일상 속 감정의 결을 색과 곡선으로 유연하듯 포착하며, 감정의 흐름을 시각 언어로 되살려 낸다. 두 작가의 작업은 외형적으로는 이질적이지만, 내면에는 흘러가는 것을 붙잡고 잊힘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내려는 공통된 흐름이 있다.

한편, 황미숙과 박혜원의 작업은 '관계의 직조'라는 흐름 속에서 감각의 구조를 시간성과 감응성을 지닌 물질을 통해 탐구한다. 황미숙은 재료의 물성과 색감에 주목하며 도자 과정을 통해 작가만의 감성을 빚어낸다. 손의 반복되는 행위와 불의 시간은 감각을 축적하고 정제하는 수행으로 이어지며, 완성보다는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보여 준다. 박혜원은 삶의 궤적을 '집'이라는 공간에 압축하여 탄생에서 죽음



황미숙, 엄원, 2024, 혼합토, 바다 모래, 증금속 산화물, 금, 고화도소성, 60x60x3cm

까지의 여정을 붉은 실로 직조한다.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관계와 기억, 감정과 시간이 켜켜이 쌓인 장소로 확장되고, 관객은 그 안을 거닐며 심리적 감각 구조를 경험하게 된다.

<감각퍼즐>은 네 작가의 이야기를 나란히 배열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서로 다른 감각의 조각들을 겹치고 이어 붙여 유동적인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마지막 퍼즐 조각은 관람자의 몫으로 남겨 둔다. 전시장을 거닐며 보는 이의 경험과 기억, 감정으로 만들어진 감각으로 그 틈을 채우며 작품이 완성되길 기대한다.

#### 2025 지역예술가교류전 <감각퍼즐>

일시 7월 25일(금)~9월 28일(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상설전시실

문의 031-783-8143~9



윤지현, layered, 2024, oil on canvas, 60.6x72.2cm



박혜원, 세한도, 2025, 붉은 실, 철, 195x275x205cm

P

R

E

V

I

E

W



여름특별기획전  
<BE CHILD - 아이처럼>

## 네덜란드 디자인 감성, '내면 아이'의 마음을 깨우다

어른이 되어 잊힌 어린 시절의 감정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열리는 네덜란드 그래픽 아티스트 턴체 플뢰르 Teuntje Fleur의 개인전 <BE CHILD - 아이처럼>은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에 시각예술의 언어로 조용한다. 그저 시각적 즐거움만을 전하는 전시가 아닌, 유년기의 정서적 결핍과 상실, 그리고 그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성인의 삶을 예술로 풀어낸 치유의 기록이자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글 에린 김 전시기획자, 리미티드블루 큐레이터



플뢰르의 작업은 시각적으로는 밝고 경쾌하지만, 그 이면에는 관계의 단절, 정서적 결핍, 그리고 애착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자리한다. 유년기 부모의 이혼과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작가는 상실의 시간을 반복적인 드로잉 행위로 견뎠으며, 치유의 과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관된 예술적 여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전시는 바로 그 여정의 단면이자, 내면 아이inner child의 감정과 감각이 시각적 형태로 발현된 결과다.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Carl Jung이 말한 ‘신성한 아이divine child’ 원형은 인간의 창조성과 감수성을 상징한다. 이 전시는 그 개념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각 관람자의 내면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유아적 자아에 주목한다. 억압되거나 잊혔던 감정은 성인의 의식 아래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마주하고 이해하는 일은 곧 자기 치유이자 정체성 탐구의 출발점이 된다.

플뢰르의 작품은 원색primary colour과 기초 도형primary shape을 주요 언어로 삼는다. 빨강, 파랑, 초록과 같은 강렬한 색채, 그리고 원, 삼각형, 사각형의 단순한 형태는 시각적 기억의 가장 초기에 자리한 심상을 불러오며, 어린 시절의 감각을 현재로 소환한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는 단순한 미적 장치가 아니라, 감정의 회복과 자아와의 재접속을 위한 정서적 통로로 기능한다.

움직이는 그래픽 작품에서는 반복과 리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인 SCHREIERSHUISJE에 벽화를 칠하고 있는 작가



인간과 기계의 우정을 담은 작가의 책 <HELLO FRIEND>

작가의 리소 프린트 작품 <GOOD TIMES>

속도감 있는 형상이 연속적으로 흐르며, 고정된 감정의 틀을 깨고 유연하게 변주되는 내면의 풍경을 그려 낸다. 현대적인 그래픽 작품을 감상하는 일도 전통적인 회화와 같이 단지 보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감각하고 느끼며 사유하는 행위로 확장된다.

<BE CHILD - 아이처럼>은 단순히 ‘아이 같음’을 모방하는 전시가 아니다. 이는 한 예술가가 유년의 상처와 기억을 직시하고, 이를 예술의 언어로 치유해 온 시간의 기록이자, 정체성을 탐색하는 심리적 여정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 아이와 마주하고, 잊고 지냈던 감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플뢰르는 “원색은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색”이라는 메시지로 관객과 소통하려 한다. 이 전시에서 당신은 색과 형상 너머, ‘나’라는 존재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여름특별기획전 <BE CHILD - 아이처럼>

일시 8월 8일(금)~10월 26일(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031-783-8000

R E V I E W

## 야쿠프 흐루샤 & 밤베르크 심포니, 김봄소리 독일의 중후함에 보헤미아의 상쾌함을 더하다

5월 31일(토)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독일 굴지의 교향악단인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2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지난 내한과 마찬가지로 상임지휘자 야쿠프 흐루샤와 함께 왔는데, 체코 태생인 흐루샤는 올가를 세계 최정상급의 오페라 포스트 중 하나인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 음악감독으로 취임 예정이다. 지금 국제 무대에서 가장 핫한 지휘자와 그가 10년째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교향악단을 1,100석 규모 콘서트홀의 친밀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 근래 유럽 무대에서 성가<sup>聲價</sup>를 높이고 있는 김봄소리가 협연자로 합류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의 가치는 각별했다.

글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사진 최재우





1부 첫 곡은 스메타나의 <두 과부> 서곡이었다. 체코 국민 작곡가인 스메타나는 지휘자뿐 아니라 악단의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인물. 흐루샤와 밤베르크 심포니는 독일적 중후함과 보헤미아적 상쾌함이 절묘하게 배합된 사운드와 능숙한 연주로 낯선 작품을 매력적으로 들려주었다. 산뜻한 출발이었다.

다음 곡인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에서 김봄소리는 기대 이상으로 멋진 연주를 들려주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호소력 있는 음색으로 1악장의 긴장감 넘치는 전개, 2악장의

애절하고 감미로운 노래, 3악장의 힘차게 비상하는 흐름 등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살려 낸 호연이었다. 최근 같은 지휘자, 악단과 음반을 녹음한 곡이기도 한 만큼 시종일관 빈틈없이 잘 준비된 연주였고, 오케스트라와의 호흡도 매우 뛰어났다. 특히 흐루샤와 밤베르크 단원들은 독주자가 솔로를 펼칠 때에는 충분히 뒤로 물러서 있다가, 관현악이 부각되어야 할 때에는 거침없이 고조되고 폭발하는 연주로 악곡 특유의 드라마틱한 매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한편 앙코르로 연주한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

린>(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편곡판)에서 김봄소리는 협주곡 때보다 유연하고 풍부한 음색과 현란한 기교를 꺼내 보여 다시금 열띤 박수갈채를 이끌어 냈다.

2부에서는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이 연주되었다. 이 곡에서 흐루샤와 밤베르크 심포니는 무르익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호쾌하고 감흥 넘치는 열연을 펼쳐 보였다.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1악장에서는 열정적인 드라이브 속에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분명히 짚어 냈고, 2악장에서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듯한 흐름의 감각적인 표현

과 악장의 빼어난 바이올린 솔로도 돋보였다. 활력 넘쳤던 3악장을 지나 4악장에서는 다소 서두르는 경향도 엿보였으나, 밤베르크 특유의 조화로운 앙상블과 견실한 합주, 흐루샤의 젊고 패기 넘치는 드라이브 덕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앙코르는 드보르자크가 편곡한 브람스 헝가리 무곡 18번과 21번이었다. 보헤미아 작곡가와 독일 작곡가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역시 악단의 정체성과 연계된 선곡이었고, 평소 듣기 힘든 곡들이라 더욱 반갑고 귀한 경험이었다.

R E V I E W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 온전한 거장의 시선을 담다

6월 15일(일)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연주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구상한 음악적 콘셉트나 메시지가 청중에게 정확히 전달되기를 원한다. 만약 오랫동안 고민하며 준비한 프로그램이 특정한 색채를 띠고 있다면 연주자가 지니는 전달 의욕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2025년 초여름을 장식한 조성진의 독주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솔로 작품 전곡과 다른 작곡가들의 프로그램으로 짜였다. 특히 6월 15일 성남아트센터 프로그램에서는 '자연'과 '확장'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와 그에 걸맞은 독자적인 색채감이 두드러졌다. 리스트, 베토벤, 버르토크로 이어진 전반부에서는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속 부드러움과 거친 질감을 극한으로 대비시키는 흥미로운 장면들을 만들어 냈고, 브람스의 대작 소나타를 연주한 후반부에서는 젊은 브람스가 상상하고 추구했던 오케스트라적 음향의 새롭고 흥미로운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글 김주영 피아니스트,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사진 최재우



첫 곡으로 택한 리스트의 모음곡 <순례의 해> 중 3권 '에스테장의 분수'는 이 곡집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곡이자, 인상주의의 효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리스트의 취향을 명확히 나타낸 명곡이다. 높낮이와 세기에 따라 달라지는 물의 움직임과 함께 작품 전체를 감싸고 도는 종교성에 대한 표현을 조성진은 깔끔하고 유려한 흐름과 군더더기 없는 악상으로 스피디하게 연주했다. 술술 흘러가지만 피상적으로 들리지 않고 뒷맛이 오래 남는 것은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사전에 계획한 구성의 맺고 끊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감상자들의 음악적 포만감은 이로써 자연스럽게 채워졌다. 이어지는 베토벤의 소나타 15번

'전원'은 선곡 이유부터 궁금했는데, 조성진의 자세는 시종 편안하고 여유로운 진행을 통해 작품 속에 나타나는 변화무쌍한 악상들을 모두 포용하는 모습이였다. 표제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연주자가 작품에 가진 생각을 읽을 수 있었는데,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아 개운했던 2악장이나 즐거움 가운데 적당한 명인기를 섞어서 소화해 낸 4악장이 하이라이트였다.

분위기는 베토벤의 모음곡 <야외에서>를 통해 일순 전환됐다. 작곡가의 피아노작 중 유독 표제성이 강한 다섯 곡의 모음곡을 조성진은 아방가르드적 색채와 비르투오시티가 공존하는, 커다란 기조 안에서의 통일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했다. 첫 곡인 '드림과 파이프르'



에서는 거친 질감의 음향이 난무했지만 정돈된 음상으로 정리되어 듣기에 무리가 없었고, 두 번째 '바르카롤라'와 '뮌헨'에서는 유희적인 성격이 전면에서 드러나는 베토벤 특유의 무조성이 돋보였다. 전곡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네 번째 '밤의 음악'에서는 섬세한 음색 조절을 통해 개구리의 울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합창 그리고 어둠이 주는 신비스런 요소들을 적절히 배열해 냈다. 마지막 곡 '추격'은 설 새 없이 몰아치는 복합 리듬의 향연을 통해 객석의 청중들을 마치 질식 상태로 몰아가는 듯한 에너지를 선보였다.

#### 우리가 몰랐던, 브람스의 '젊음'을 그려 내다

후반부에 무대에 올려진 브람스의 소나타 3번은 작곡가의 초기작 중 높은 짜임새와 완성도 있는 구성으로 인기 있는 곡이다. 조성진의 연주를 듣고 새삼 깨달은 것 하나가 작품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젊음'에 대한 요소였다. 브람스 약관의 나이에 만들어진 곡이니 당연한 사실임에도, 그간 연주자나 감상자 모두 브람스의 한정된 이미지에 빠져 '심각함'이나 '쓸쓸함', 혹은 '뒹뒹함'에 강박처럼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른다. 조성진의 해석은 맑고 솔직하며 탄력 있는 기교를 전면에서 내세운, 알기 쉽게 풀어낸 브람스였다. 물론 단순하게 악보 그대로를 구현한 것은 아니며, 지금 나타난 악상 표현들이 있기까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 왔음도 분명하다. 비르투오소적으로 처리된 1악장의 여러 악상들은 브람스의 오케스트



라적 아이디어보다는 피아니스트로서의 관점으로 바라본 해석이었으며, 장대한 구성의 2악장은 긴 호흡을 강조하기보다는 아귀자기한 서정성과 투명한 색채감에 초점을 맞췄다. 피아니스트의 결단력과 집중이 요구되는 스케르초 악장은 넉넉한 기교와 절제된 다이내믹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간주곡격인 4악장은 소규모임에도 그 안에서 환상곡적인 성격을 끄집어낸 부분이 놀라웠다.

피날레에서 조성진은 비로소 브람스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염두에 둔 모습을 보였는데, 차별하면서도 교묘한 음향적 빌드업이 귀에 들어왔다. 프레이징과 대규모 섹션들의 전환이 딱딱하거나 직선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졌는데, 최후에 이르러 감상자들은 최대한의 자연스러움으로 젊은 브람스가 설계한 드넓은 스케일과 만나게 되었다. 거대한 작품을 온전히 하나의 시선으로 파악해 내는 대가의 능력까지 갖춘 조성진의 무대였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하겠다.

더블베이스리스트 유시현

## 묵직하게, 그러나 화려하게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로 불렸던 19세기 보테시니부터 현대의 게리 카 Gary Karr, 1941~와 리나트 이 브라기모프 Rinat Ibragimov, 1960~2020, 에드가 마이어 Edgar Meyer, 1960~에 이르기까지, 더블베이스에 솔로 악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어넣은 선구자들은 시대를 이어 꾸준히 등장해 왔다. 국내 클래식 음악계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10월 이탈리아 보테시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를 차지한 스무 살의 더블베이스리스트 유시현은 실로 오랜만에 국내 음악계에 등장한 더블베이스의 라이징 스타다. 9월 18일 마티네 콘서트 협연을 앞두고, 유시현에게 솔로 악기로서 더블베이스의 매력과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 과장



# SIHEON RYU

마티네 콘서트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해 10월부터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학업을 이어 가며 연주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요. 음악의 본고장인 만큼 다양한 연주를 접하면서 영감을 얻으려 노력하는 한편, 독일어 공부에도 열심히 시간을 쏟고 있죠. 6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2025 ISB 국제 더블베이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라는 성과도 거뒀고요. 격년 개최 콩쿠르이자 컨벤션인데,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더블베이스스트들이 모이는 축제이기도 해요. 콩쿠르뿐 아니라 여러 음악가들과 교류할 수 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이탈리아 보테시니 콩쿠르에서 1위 및 25세 이하 특별상을 수상하셨지요. 한국인 연주자로서는 가장 우수한 성과였는데요, 당시 좋은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 그저 매 라운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했죠. 대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대하지 말자'를 외쳤거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순간 압박감에 제 음악을 보여 주지 못하고 실수하지 않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의 나를 믿는 수밖에 없다고 쉽 없이 다독였던 것 같아요.

더블베이스는 첼로나 바이올린처럼 자주 조명 받는 악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무대에 나설 때

존재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콩쿠르 당시에 저만의 음악을 잘 보여 줘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상, 특히 동양인 최초 1위 수상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 정말 의미가 크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콩쿠르 현장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며칠 동안 머물면서 대회를 치르셨는지요?

1~3차 라운드와 결선 순이었어요. 콩쿠르 전 보테시니가 태어나고 자랐던 도시 크레모나를 둘러보면서 그가 어떤 환경에서 수많은 더블베이스 작품을 만들었는지 알게 됐죠.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탈리아인의 느긋한 일상과 풍경들은 음악에 대한 이해는 물론 긴장과 불안을 떨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꼭 연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 속에 작곡가와 곡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정적인 접근 방식을 알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던 것 같아요.

1주일 동안 4회 차 경연을 치르다 보니 준비곡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이 곡들을 연주하지 못하고 떠난다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서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경연 주간엔 거의 매일 비가 와서 빗속에 악기를 들고 다녔던 것도 추억이네요.

파이널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나요?

파이널은 오케스트라 협연이었는데 리허설 당시엔 호흡이 맞지 않아서 엄청 긴장했어요. 다만 그 덕분에 실제 연주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되새길 수 있었고, 본 무대에서는 좋은



2024년 제9회 조반니 보테시니 국제 콩쿠르 현장. 유시현은 역대 최연소이자 동양인 최초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호흡으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3악장에서는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정말 신나게 연주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 더블베이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꼭 계속하게 되신 매력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접하게 됐어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중후한 울림과 소리에 빠져 지금까지 오게 됐죠. 더블베이스의 커다란 울림이 홀을 꽉 채우고 제 몸을 울리게 하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더블베이스에 대한 애정과 별개로 힘든 점도 있으신가요? 이등의 불편함이나 자세로 인한 피로도도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이요.

물리적인 어려움이죠. 악기가 크다 보니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기차나 트램에서 눈치를 볼 때도 있고, 특히 비행 수속이 제일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번에 미국 ISB 콩쿠르에 참가하고 빈으로 돌아오는데, 악기를 실어 주지 않아 비

행기를 놓치기도 했어요. 많은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몸 관리도 필수죠. 무엇보다도 아직 대중에게 더블베이스 솔로 레퍼토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악기의 진짜 매력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2022년 서울대 음대 조기 입학 후 지금은 빈 국립 음대 학사 과정에 재학 중이시죠? 유학을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2021년 윤 종계 줌 ZOOM 마스터클래스 오디션에 합격해서 도미니크 바그너 Dominik Wagner 교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 뒤, 바로 유학 결심이 섰죠. 바그너 교수님께서 빈으로 임용되셔서 자연스럽게 빈으로 가게 되었는데, 음악의 본고장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솔로 악기로서 더블베이스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곡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먼저 제가 최근 공부를 시작한 헤르틀 František Hertl, 1906-1973의 더블베이스 소나타인데요, 체

코의 민속음악을 녹여 낸, 멜로디가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또 보테시니의 모든 곡들을 꼽고 싶어요. “보테시니가 없으면 베이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베이스를 위한 멋진 곡들을 여럿 작곡했는데, 파가니니처럼 현란한 테크닉을 보여 주는 곡들도 많아 추천합니다. 특히 보테시니가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모티프로 쓴 <알라 멘델스존<sup>alla Mendelssohn</sup>>은 꼭 들어 보셨으면 해요.

#### 더블베이스의 레퍼토리 확장이나 다른 장르와의 협업에 대한 욕심도 있으신지요?

베이스 곡들이 많지 않다 보니 그리그와 브람스 첼로 소나타,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처럼 첼로 작품도 자주 연주해요. 이번 미국 콩쿠르에서도 비버의 바이올린 작품 <파사칼리아>를 연주했죠. 더 다양한 악기의 곡들을 소화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먼저 현존하는 모든 베이스 작품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나만의 음악으로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 9월 18일 마티네 콘서트에서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과 함께 디터스도르프의 더블베이스 협주곡 E장조를 협연하시지요? 어떤 작품인가요?

피아니스트에게 모차르트 소나타를 잘 연주하기란 정말 어렵듯이, 더블베이스리스트에게는 디터스도르프 협주곡이 그런 작품입니다. 화려한 기교를 과시하기보다는 악기 본연의 성격과 정교한 음악적 구조가 돋보이는데요, 빠른 부분과 더블스톱, 활의 섬세함 등 다양한

기술이 과장 없이 자연스럽게 음악에 스며 있어요. 그래서 연주자로서도 ‘어떻게 더 표현할 것인가’를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 곡이죠. 더블베이스와 섬세한 대화처럼 주고받는 오케스트라 반주 역시 매력적입니다. 특히 1:3악장에서 주제와 동기가 서로 넘나드는 부분에서는 고전주의 양식이 잘 드러나고, 솔로와 오케스트라가 긴장과 이완을 만들어 내는 모든 부분이 곡의 큰 매력입니다.

또 이번 무대에서는 18세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튜닝<sup>Viennese Tuning</sup>으로 작곡 당시의 소리를 최대한 표현하려고 해요. 원래 솔로 튜닝이 AEBF#이라면 비엔나 튜닝은 AF#DA를 사용하는데요, 운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당대의 소리를 재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뻐요.

#### 더블베이스 연주자로서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양한 무대와 배움을 통해 저만의 소리와 음악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 궁극적으로는 더블베이스의 깊은 표현력과 감정선을 더 많은 청중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 연주를 듣고 누군가 더블베이스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해요. 단순히 ‘연주자’로 머물지 않고 더블베이스의 새로운 길을 열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9월 18일(목)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오스트리아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에서 유시현의 연주를 만날 수 있다

# CULTURE +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트렌드  
시와 창작의 미래



# NO COUNTRY FOR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인생은 예측 불가... 노인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 OLD MEN

남자는 어설피 강도다. 편의점을 털다 매번 잡힌다. 경찰서에 자주 가다 보니 죄수 사진 찍는 여자 경관과 눈이 맞는다. 결혼 후 남자는 갱생의 삶을 다짐하고, 둘은 행복하다. 여자가 임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지역 부호가 다섯 쌍둥이를 낳았다는 뉴스를 접한다. 돈도 많고 아기도 많다. '아기를 잘 키운다면 모두가 행복한 일 아닐까' 생각한 남자와 여자는 유괴를 결심하지만, 남자의 감방 동료들이 탈옥하며 일이 꼬인다. 동료들은 아기를 미끼로 돈을 벌려고 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더니, 부부는 뜻하지 않게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다.

글 라제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기자

1999년 한국일보 입사 후 편집부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치며 엔터테인먼트 팀장과 문화부장, 신문에디터로 일했다. 2004년부터 영화를 취재해 왔으며, 영국 서식스대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 『질문하는 영화들』 『말을 거는 영화들』, 역서 『할리우드 전복자들』로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와 소통하는 한편, 뉴스레터 '영화로온'으로 매주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영화 <아리조나 유괴사건><sup>1987</sup>은 코미디다. 엉뚱한 부부가 엉뚱한 짓을 저질렀다가 엉뚱한 상황에 처하는 과정을 엉뚱한 웃음으로 전한다. 조엘 Joel Coen. 이선 코엔 Ethan Coen 형제의 두 번째 장편 영화다. 이들의 장편 데뷔작 <분노의 저격자><sup>1984</sup>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분노의 저격자>는 한 부부의 불륜에서 촉발되는 살인사건을 그린다. <아리조나 유괴사건>과 겉모습은 다르나 공통점은 있다. 등장인물들이 나름대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뭔가를 추진하나 일이 틀어지고 인생 궤도를 이탈한다는 점이다. <아리조나 유괴사건>이 웃음을 제조한다면, <분노의 저격자>는 스릴을 빚어낸다.

<아리조나 유괴사건>과 <분노의 저격자>뿐만 아니다. 코엔 형제는 <바톤 핑크><sup>1991</sup>에서는 할리우드에서 예상 밖 인생행로에 접어든 극작가를 스크린 중심에 내세운다. 이후 이어진 영화 대부분이 예상치 못한 인생 함정에 빠진 이들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허드서커 대리인><sup>1994</sup>은 잡역부로 한 회사에 취직했다가 뜻하지 않게 사장 자리에 오른 인물에,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sup>2001</sup>는 의도치 않게 아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는 남자에 각각 주목한다.

코엔 형제에게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감독상, 각색상을 안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예외는 아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 르웰린(조슈 브롤린)은 사냥을 나갔다가 참혹한 현장을 발견한다. 죽은 자들의 불행과 달리 르웰린은 거액을 손에 쥘다. 그는 충동적인 동정심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악마 같은 살인청부업자 안톤(히비에르 바르뎀)이 르웰린을 표적으로 삼는다. 200만 달러로 새로운 삶을 살리라는 르웰린의 예측은 빗나간다. 르웰린뿐

일까. 그의 아내 칼라(켈리 맥도널드)도, 사건을 쫓는 보안관 에드(토미 리 존스)도 예상치 못한 미래와 마주한다. 심지어 비정하고 철두철미한 안톤까지도.

**그들을 움직인 돈이라는 욕망**

이들의 일이 틀어지는 건 비루한 욕망 때문이다. 르웰린은 마약 거래 현장에서 발견한 부정한 돈을 행운으로 여긴다. 트레일러 생활을 하면서도 일찍 은퇴한 그는 돈이 궁하다. 안톤은 의뢰받은 살인청부가 목적이 아니라 거금을 차지하기 위해 르웰린의 뒤를 쫓는다. 안톤을 저지하기 위해 고용된 또 다른 살인청부업자 칼슨(우디 해럴슨) 역시 돈을 타깃으로 삼는다. 셋 모두 각기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가치관을 지녔으나 욕망 앞에선 살인을 주저하지 않는다.

영화는 1980년 멕시코와 인접한 텍사스를 배경으로 한다. 1970년대를 거치며 미국 사회는 황폐화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역사상 첫 패배라는 굴욕을 경험했고, 석유 파동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풍요로운 세계 1등 국가라는 신화는 무너졌다.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던 미국인들의 마음은 각박해졌고 돈에 매달리게 됐다.

돈에 대한 집착은 르웰린과 안톤, 칼슨 등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다. 르웰린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을 넘을 때 충상을 감추기 위해 미국 젊은이에게 500달러를 주고 점퍼를 산다. 르웰린이 또 다른 젊은이에게 마시다가 만 맥주를 달라고 하자 젊은이는 얼마를 줄 거냐고 묻는다. 르웰린이 멕시코에서 피 묻은 100달러를 건네자 마리아치는 마다하지 않는다. 안톤은 사람들을 죽일지 말지를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 영화 후반부에선 곤경에 처한 안톤이 소년에게 셔츠를 벗어 달라고 100달러를 내밀자 순박한 소년은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안톤이 자리를 뜬 후 소년은 친구와 돈을 서로 갖겠다고 말다툼을 벌인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천박한 인식이 드러나는 장면들이다. 영화 도입부 황무지의 풍경은 금전에 잡식된 1980년 미국인의 내면을 상징한다.

**노인의 지혜로도 예측할 수 없는 삶**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늙은 보안관 에드의 뒷두리 같은 독백으로 시작한다. “내 나이 스물다섯에 보안관이 됐다… 옛날 보안관은 총을 멀리했다…”라는 그의 말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돌변한 세태에 대한 한탄이 스며 있다.

에드가 보기에 세상은 온통 악에 물들어 있다. 사람들은 예전과 달리 “돈과 마약 때문에”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 “요즘 범죄는 딱히 동기가 없(기도 하)다”. 에드는 노인들(!)



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어떤 부부가 고문까지 즐겼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서 혀를 끌끌 찬다. 이전 도덕관념과 세계관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영화 속 노인들은 선하다. 도망치던 르웰린이 급히 잡아탄 차는 노인이 운전한다. 그는 르웰린을 위해 점잖게 한마디 한다. 왜 위험하게 모르는 사람 차를 얻어 타냐고. 안톤이 외딴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난 척하자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도,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상점 주인도 노인이다. 이들은 선의를 보였다가 위기에 빠진다. 르웰린의 장모는 낯선 이의 친절에 감동해 비밀을 누설했다가 가족을 위협 속으로 몰아넣는다. 적어도 화면 속에서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은 경험과 지혜를 상징한다. 돈을 절대 가치로 숭배하는, 변질된 세상에서 경험과 지혜는 소용이 없다. 에드는 “(세상이) 점점 막되어 가는데 손쓸 수가 없어” 조기 은퇴를 결심한다. 그는 황무지 트레일러에서 고양이들과 사는 사촌 형을 만나러 간다. 에드는 말한다. “예전에는 나이 먹으면 하느님이 돌봐 주시겠지 했죠. 헛된 바람이었어요.” 사촌 형이 답한다. “그 맘고생 너만 겪는 거 아냐… 오는 변화는 막을 수 없어… 접을 건 접어야지.” 에드의 삼촌이 살해됐던 1909년에도 악은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소름 끼치는 악이었을까. 1980년 미국과 비교해 지금 이곳의 우리는 배금주의에서 자유로운가. 에드의 대사대로 “인간과 소의 싸움도 결과를 모를” 정도로 삶은 예측 불허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다. 우리의 삶이 물질이라는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거다. 그런 세상에는 노인뿐 아니라 그 누구를 위한 나라도 없다고 영화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사진 제공 (주)해리스엔컴퍼니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9월 17일(수) 오후 2시 미디어홀에서 성남미디어센터 상영작으로 만날 수 있다

AI와 창작의 미래

# AI와 콘텐츠 산업, 충돌과 공존

몇 달 전, 소셜미디어 타임라인과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화풍으로 그려진 인공지능<sup>A</sup> 생성 이미지로 가득 찼던 일이 기억날 것이다. 오픈AI가 새로 선보인 이미지 생성 기능을 알리기 위해 기존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재구성한 이미지들을 선보였는데, 뜻밖의 폭발적 반응을 얻은 것이다.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지브리풍 그림 생성 요청을 처리하느라 AI 모델을 가동하는) GPU가 녹아 나고 있다"라고 우는소리를 할 정도였다.

글 한세희 IT 칼럼니스트

전자신문 기자와 동아사이언스 데일리뉴스 팀장, 지디넷코리아 과학 전문기자를 지냈다. 기술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변해 가는 모습을 항상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명작 애니메이션을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는 애니메이션 대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활동 근거지이기도 하다. 그들의 작품을 보며 자란 많은 사람들이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에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지브리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캐릭터 디자인과 아름다운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한다. 마치 자신이 지브리 세계관 속에 들어간 듯한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오픈AI의 이 기능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듯하다.

### 미야자키 감독이 소외된 지브리 이미지 열풍

하지만 아마 미야자키 감독 본인은 싫어하지 않을까? 오픈AI가 만든 지브리 느낌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오자 지브리 팬들은 “정당한 저작권 대가를 치르지 않고 AI를 학습시켰다”라거나 “아무리 비슷하게 그려도 원작의 영혼을 담아낼 수 없다” 등의 주장으로 불편한 심기를 비쳤다. 정작 미야자키 감독 본인은 이 ‘지브리 현상’에 대해 가타부타 말한 적이 없다. 다만, 그는 2016년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나는 이런 것들을 흥미롭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며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은 고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나는 완전히 혐오스럽다”라고 말한 바 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그가 여전히 같은 생각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간 AI 분야엔 놀랄 만한 발전이 있었고, AI가 만든 이미지는 기교로는 충분히 써먹을 만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AI는 ‘고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듯하다.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미묘한 감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AI 생성물들이 인간의 ‘진정한’ 창작물을 대체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까? 아니면 단지 AI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을 뿐,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나 예술성은 그저 자만에 불과한 것일까?

이런 곤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기술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다. 디자인이나 영상, 광고, 마케팅 콘텐츠 등 창작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분야에서 AI는 인간을 빠르게 대체 중이다. 사실 오늘날 많은 창작물은 ‘영혼을 담지 않아도 충분한’ 수준에서 활용 또는 소비되고 있다. 인간의 고뇌나 차별적 감성이 묻어나는 창작물은 순수 예술 작품처럼 소수만 향유하는 희귀한 영역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기술에 의해 창작 작업이 대체되고, 창작의 가치는 떨어지는 듯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AI가 만든 심슨 가족과 픽사 스타일 그림

**빅테크 vs 창작자, 법정에서 만나다**

이런 흐름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 창작자들은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들에 저작권 소송 등을 통해 저항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동의도 없이 창작물을 가져가 AI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것이다. 작가나 디자이너 등에 의한 비슷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6월엔 미국 월트디즈니 컴퍼니와 컴캐스트Comcast가 AI 이미지 생성 기업 미드저니를 고소했다. 컴캐스트는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을 소유한 미국 거대 미디어 기업이다. 이들은 미드저니가 <스타워즈> <심슨 가족> 같은 인기 영상 콘텐츠를 긁어 가 AI 모델 학습에 활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저작권 침해 건당 15만 달러(약 2억4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기사를 긁어 가 AI 모델을 학습시킨 오픈AI 등 AI 기업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고, 세계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은 자사 데이터의 활용을 원하는 AI 기업들에서 데이터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게이이미지 같은 스톡 이미지 기업들도 생성 AI 기업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기술 기업들은 이에 맞서 자신들의 외부 콘텐츠 및 데이터 사용이 '공정 이용(fair use)'이라 주장한다. 공정 이용은 교육이나 연구, 언론 보도 등의 목적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술 기업들의 '절반의 승리'**

최근 미국 법원에서 창작자와 AI 기업 사이 저작권 소송의 판결이 일부 나왔다. 논픽션 작가 3명이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에 대해 제기한 소송,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과 폴리처상 수상자 앤드루 션 그리어 등 창작자 13명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 소송의 판결은 AI와 창작자, 저작권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잘 보여 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두 경우 모두 AI 기업의 '공정 이용'이 인정됐다. 기술 기업의 승리이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라고 하기엔 애매하다.

법원은 앤스로픽이 책을 이용해 클로드를 학습시킨 것은 책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판사는 이 과정이 "철저히 변형적(quintessentially transformative)"이라고 판단했다. 생성형 AI 챗봇은 학습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자에게 뱉어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형한 내용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책을 읽은 독자가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앤스로픽이 클로드의 학습 자료를 구한 방식 - 저작권을 침해해 책들을 올려 둔 해적판 사이트에 접근해 AI를 학습시킨 것 - 은 문제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앤스로픽은 학습 데이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해적판 도서를 이용한 것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생겼다.

앤스로픽 재판 사흘 뒤 판결이 나온 메타 소송에선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저작물을 활용해 나온 결과물이 저작권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입히거나 저작물과 직접 경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공정 이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자들이 메타의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모델 '라마LLaMA')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메타 역시 자사 LLM이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학습해 전적으로 다른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주장했다. AI는 여러 소설을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질의에 대해 본래의 소설과는 다른 결과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메타는 "이는 요리책을 보고 요리법을 익히는 셰프가 요리책과 경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셰프는 레시피가 아니라 요리를 만든다"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 판결이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며, 향후 메타와 다른 저작권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메타가 AI 모델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대로 피해를 주장하지 못해 원고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성격의 소송에 대해 나온 유사하면서도 약간은 결이 다른 결과는 생성형 AI와 저작권, 창작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오늘날의 조금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또 AI가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데이터 삼아 학습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콘텐츠에 접근하는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단지 '연구를 위해'라는 명목으로 저작권자의 노력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술 분야에 알리면서, 동시에 저작권 보호는 새로운 지식과 창작의 확대 재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이 근원적 목적임을 상기시킨다.

**AI가 창작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렇다면 AI는 새로운 지식과 창작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까? 구글과 네이버로 대표되는 검색은 트래픽을 창작자의 웹사이트로 보내 줌으로써 광고 수익이나 판매, 인지도 향상 등의 유익을 안겨 줬다. 대형 방송사나 신문사 등 기존 콘텐츠 게이트키퍼들의 영향력을 무너뜨림으로써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과 조직에 더 많은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질문에 답하고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AI 서비스는 사용자를 어디에도 보내지 않는다. 자체 서비스 안에 머물게 할 뿐이다. 창작자는 시간과 돈, 노력을 들



여 만든 콘텐츠로 AI를 학습시켜 결국 AI가 자신의 밥그릇과 창작 기반을 빼앗아 가는 것을 지켜봐야 할 처지가 되리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조사 회사 시밀러웹에 따르면, 챗GPT 등장 이후 최근 3년간 <허핑턴포스트> <비즈니스인사이어>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 트래픽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AI와 창작자가 공존하고, 나아가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고민

이 한창이다. 가장 먼저 등장한 아이디어는 데이터 학습에 대해 대가를 받는 것이다. 세계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Reddit은 구글 등 주요 AI 기업들에 데이터 학습을 허용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협상력이 강한 거대 콘텐츠 기업 외에 소규모·개인 창작자를 위한 대안도 등장하고 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웹사이트 보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클라우드플레이어 cloudflare.com는 AI 모델의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긁어 가는 크롤러의 접근 허용 여부를 웹사이트 운영자가 결정하고, 수집하는 데이터에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새로운 마켓플레이스를 선보였다. 온라인 공간 속 저작물의 활용 범위를 창작자 스스로 결정해 공개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든 크리에이티브커먼스CC도 AI 시대에 맞춰 저작권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한 'CC 시그널'이란 규약을 새로 제시했다. 인터넷의 개방성과 AI를 위한 데이터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는 목표다.

이러한 시도들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MP3 음악 파일과 인터넷 검색이 등장했던 시기의 혼란을 극복해 온 것처럼, AI 시대의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뿐이다. 시장에서 널리 소비되는 일상적·전형적 콘텐츠는 이제 AI의 생산성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고, 이는 현재 창작자의 많은 일자리를 앗아 갈 전망이다. 이런 구조조정의 물살을 헤치고 살아남을 창작자의 역할이 'AI 모델에 새롭고 신선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울한 미래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만의 독창적인 관점과 표현을 제시하는 것, 그것 외에 예술의 다른 역할은 없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은 주요 AI 기업들에 데이터 학습을 허용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 SEONGNAM+

성남의 예술가  
극작·연출가 김재우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8·9월의 큐레이션  
프로그램 가이드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성남아트센터 공간 탐구생활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극작·연출가 김재우

## ‘좋은 예술’로서의 배리어프리 연극 만들기

가수 지망생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작곡과 연출로 활동 영역을 넓혀 온 여정을 따라가 보면 자기표현과 사회적 소통의 욕망이 균형 있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극작가 겸 연출가 김재우는 지난 몇 년 동안 배리어프리 연극을 만들면서 예술의 심미적 기능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했고, 지난 7월 19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선보인 <나는 코다입니다> 두 번째 시즌을 맞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냈다.

글 김문영 객원기자 사진 최재우

### 연극인 김재우를 키운 성남

김재우 작가가 나고 자란 성남은 연극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여정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했다. 첫 번째는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단을 만들었던 일이다. 2007년 <뮤지컬 핑키핑키>로 데뷔한 배우 김재우는 10년간 연극계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8년 극단 ‘1986 컴퍼니’를 창단했다. 1986년생 대학 동기 몇 명이 모인 작은 극단은 자유롭게 역량을 펼치기에 좋았다. 이때부터는 연기뿐만 아니라 곡을 만들고, 극본을 쓰고, 무대를 연출하면서 연극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작품으로 관객에게 무엇을 전달할지 전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배리어프리’는 김재우 작가가 하려는 예술의 방향, 연극 작업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주제이자 성남과의 두 번째 인연이 시작된 계기다. 작가는 지난해 성남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창작활



동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나는 코다입니다>라는 배리어프리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이 작품은 성남의 청년예술인이 가진 다양한 역량과 관심사를 창작활동으로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사전 준비, 제작, 발표까지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아 완성되었다. 초연 당시 장애인의 삶을 진솔하게 그렸다는 호평을 받았고 올해 성남문화재단의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에 다시 한번 선정되어 두 번째 시즌을 맞았다.

**배리어프리의 확장을 위한 실험**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물리적·제도적·심리적 장벽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운동이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조성부터 장애인 관객을 위한 자막·수어통역·음성해설·조명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김재우 작가는 수어 공연 작품에 참여하면서 배리어프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수어라는 언어 형식의 기능과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이 출발점이었다.

2022년에는 사회적기업 '바이주나'의 김준아 대표와 함께 극단 '두번째계획'을 창단하고 배리어프리 연극을 전문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기존 배리어프리 연극이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창단 첫해에는 수어로만 연기하는 작품 <두 번째 이름>을 제작했고, 2023년에는 <너의 하루>라는 작품으로 자막



지난 7월 19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선보인 <나는 코다입니다> 포스터

이나 수어통역이 없는 새로운 배리어프리 공연을 시도했다. 작가는 작품들에 담은 의도를 설명하며 장애인 관객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저희 의도는 농인과 청인의 역할과 입장을 완전히 전복시켜 보는 것이었어요. 비장애인 중심의 연극은 청인이 음성언어로 공연하고 농인이 자막이나 수어를 보며 감상하는데, 이걸 100퍼센트 바꿔 농인이 수어로 연기하고 청인이 자막을 읽는 형식을 택한 거죠. 장애인이 이야기의 주체가 되고, 배우로 무대에 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새로운 형식의 배리어프리를 시도했고, 몇 번의 경험이 쌓이면서 <나는 코다입니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코다입니다>의 2024년 공연 현장

**비장애인 관객이 의식하는 '장벽'**

배우가 연기하는 무대의 한쪽에서 수어통역사가 내용을 전달할 때 비장애인은 수어통역사의 존재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반면 청각장애인은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수어통역사에게 시선을 빼앗긴다. 자막을 읽을 때에도 한국어와 수어의 문법이 달라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김재우 작가가 이전 작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위치를 바꿨을 때 비장애인 관객은 즉각적인 불편을 겪었다. 화면에 표시되는 대본 혹은 자막을 읽으며 수어로 연기하는 배우의 메시지와 감정을 포착하려 애써야 했다. 비장애인은 그 불편을 경험하면서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장벽'을 의식했다.

배리어프리 연극을 관람하는 비장애인이 자기 자신이 겪는 불편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애초에 열린 마음으로 '장벽'을 마주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비장애인 관객 대부분이 “장애인에 대해 몰랐던 점을 배웠다”라거나 “장애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라고 호평을 들려주었다. <나는 코다입니다>는 어쩌다 배리어프리 연극을 접하는 관객의 호의적인 피드백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고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느 한쪽의 불편을 요구하지 않는다. 농인 배우는 수어로 연기하고 청인 배우는 음성으로 연기하며 무대에서 공존한다. 인

물의 등장과 퇴장 없이 장면이 이어지고 상황이 전개되는 구성으로 관객의 시선과 집중력을 붙잡는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공존하는 방식을 생각하도록 안내한다.

**한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

<나는 코다입니다>의 주인공 도영은 장애인식 개선 강연에 나서서 코다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한다. 코다CODA는 ‘Children of Deaf Adults’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농인과 청인이 모두 해당하는데 보통 청인 자녀를 가리킨다. 작품은 도영의 회상 형식으로 할머니 손에 자란 유아기, 부모님의 통역사 역할을 했던 어린 시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된 청소년기를 순차적으로 보여 준다. 코다의 삶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다르지 않은지, 생생한 에피소드를 통해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을 바로잡고자 한다.

김재우 작가는 도영과 부모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다수의 장애인과 코다를 인터뷰했고 그들의 실제 삶을 보여 주는 사례를 끌어오곤 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장애인 가족을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존재로 그리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작가는 작품 속 도영이네의 셋방살이 에피소드가 부모의 장애와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하는 장면은 어느 가정이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에피소드는

도영이가 어른들의 대화에서 통역사 역할을 하면서 대출, 상환 같은 단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는 삶의 모습일 뿐이지요. 저는 도영이네 가족을 이야기의 주체로 내세워서 ‘한 사람의 삶’이라는 관점으로 장애인 가정, 코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싶었어요.”

**모두의 삶은 평등하다**

관객이 편견 없이 장애인과 코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김재우 작가는 <나는 코다입니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에는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재연을 준비하면서 초연 때 아쉬웠던 점들을 상당 부분 보강했다. 도영이의 회상 에피소드를 추가해 60분의 상연 시간을 75분으로 늘리고, 배우도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중복 배역을 줄이고 좀 더 다채로운 인물 표현이 가능하게 했다.

작년에는 청인 관객이 수어를 이해하고 농인 관객이 음성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스크린에 대본을 보여 주었는데 올해에는 자막 형태로 편집·상영해 감상 편의를 개선했다. 배경음, 효과음 같은 소리를 영상이나 조명 같은 장치로 시각화하는 것도 배리어프리 연극의 중요한 요소이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에는 영상, 조명, 음향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힘을 빌려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성남문화재단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마자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대관을 준비한 덕분에 좀 더 좋은 공연 환

경을 마련하는 한편, 공연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려 지난 7월 19일 두 차례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다양한 관객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전석 무료로 공연장 문턱을 낮추고 입퇴장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객석으로 운영해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책임감과 예술성의 추구**

김재우 작가는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이 아니었다면 기존 공연을 수정하고 보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이 예산, 준비 과정, 작품 발표까지 알차게 지원해 주셔서 스태프와 배우들 모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어요. 배리어프리 연극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수요와 역할은 여전히 한정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만들면서도 쉽지 않겠다, 과연 관객과 소통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무대에 올리고 반응을 보면서 이런 시도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알려 주기만 해도 굳어진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재단의 역할과 응원 덕분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리어프리 연극이 ‘누구를 향해 확장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도 관심이 크다. 다음 작품으로는 시니어가 주체가 되는, 시니어를 위한 배리어프리 연극을 구상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과 청소년 이야기 등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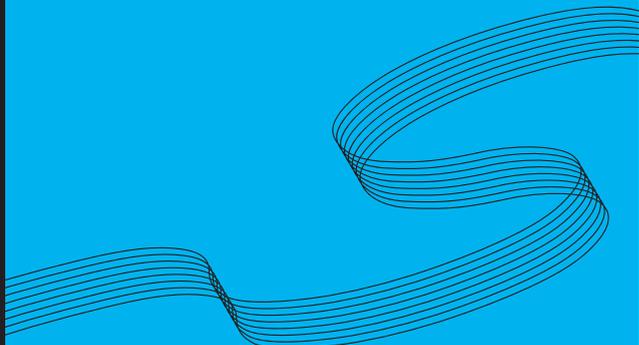


전하고 싶다. 작가는 배리어프리가 모두를 위한 운동이며, ‘장벽’을 허물어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예술의 힘이 절실하다고 믿는다. 배리어프리 연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술성과 대중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장애인이 주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관객이 봐 주지는 않아요. 비장애인을 설득할 만큼의 경쟁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더 재미있고 매력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계속 고민하면서 저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이 좋은 예술이냐는 질문의 답은 아직 못 찾았지만, 지금까지는 진심을 담았고 그 진심이 전해진 순간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2016-2019

## 찬란히 빛나던 순간들



2005년 10월 14일,  
성남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세계 속의 문화도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성남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도시 곳곳에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해  
함께 걸어온 그간의 발자취,  
알차고 풍요로웠던, 아름다운 예술의 기록들을  
2025년 한 해 동안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16-2019 성남아트센터 역대 주요 공연·전시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을 맞아,  
역대 주요 공연과 전시를  
소개합니다

# 2016-2019 HIGHLIGHTS

#### 2016

- 마크 페드모어 & 팀 켈너 2.21
- 팀 켈너 피아노 리사이틀 2.23
- 마티네 콘서트 '시인의 사랑' 3월-12월 10회
- 동시대미감전 <이재효: Walking with Nature> 5.3-7.3
- 최태지의 발레 이야기 8.31
- 해외미술특별전 <쓰촨궈> 8.26-10.16
- 연극 <밝은 지금 어두워요> 9.21-9.24
- 발레리 게르기에프 &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손열음 10.31
- 오페라 <카르멘> 11.17-11.20
- 뮤지컬 <금강, 1894> 12.1-12.4
- 연극만원 <왕세자 실종 사건> 6.23-6.26 <거기> 4.22-4.24 <꽃의 비밀> 8.26-8.28 <원판인데이> 10.28-10.30 <울모스트 메인> 12.9-12.11

#### 2017

- 동시대이슈전 <송창: 잊혀진 풍경> 2.10-4.9
- 마티네 콘서트 '브람스,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3월-12월 10회
- 톨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투간 소키에프, 임지영 4.28
- 로컬리뷰 2017 중국현대미술 <페킹궈> 4.28-6.25
- 오페라 <탄호이저> 10.26, 10.28-10.29
- 뮤지컬 <금강, 1894> 12.23-12.26
- 연극만원 <특특> 4.14-4.16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6.22-6.24 <킬 미 나우> 8.25-8.27 <장수상회> 10.20-10.22 <나와 할아버지> 12.8-12.10
- 앙트레 콘서트: 뮤직 프롬 평창 - 신지아, 정명화, 손열음 3.30

#### 2018

-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피아노 리사이틀 3.31
- 동시대미감전 <박철: 그리지 않은 그림> 3.16-5.13
- 마티네 콘서트 '모차르트의 정원' 3월-12월 10회
- 조재혁 x 이은결 4.28
- 일본 내추럴 댄스 테아트르 <서커스> 8.10-8.11
- 중국가극무극원 <조씨고아> 10.19-10.20
- 현대융합조각전 <불모장생> 10.12-12.23
- 로메오 카스텔루치 <미국의 민주주의> 11.3-11.4
-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발레리 게르기에프 & 선우예린 11.21
- 연극만원 <홍시 열리는 집> 2.23-2.25 <자메이카 헬스클럽> 6.29-7.1 <달걀의 모든 얼굴> 7.20-7.22 <호야: 好夜> 8.31-9.02 <챙> 10.26-10.28 <신인류의 백분토론> 12.7-12.9 <푸른 별의 노래> 12.15-12.16

#### 2019

- 동시대이슈전 <마디스캔들> 3.22-8.25
- 마티네 콘서트 '차이콥스키,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 3월-12월 10회
- 켈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마렉 야노프스키, 김선옥 11.17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5.25-5.26
- 성남의 얼굴전 <집> 9.20-12.22
- 연극만원 <진실×거짓> 2.22-2.24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 4.26-4.28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6.14-6.16 <죽고 싶지 않아> 9.20-9.21 <염쟁이 유씨> 10.25-10.27 <독심의 술사> 12.13-12.15



### 음악과 언어의 아름다운 공존

마크 패드모어 & 틸 펠너 | 2.21 ↗

독일 가곡 스페셜리스트 마크 패드모어가 피아니스트 틸 펠너와 함께 성남아트센터 무대에 섰다. 패드모어의 세 번째 내한이었던 이 공연은 슈만 <시인의 사랑>과 베토벤 <멀리 있는 연인에게> 등 연가곡으로 채워졌다. 패드모어의 파트너로 함께한 피아니스트 틸 펠너는 2월 21일 듀오 리사이틀에 이어 23일 같은 무대에서 독주회 무대를 선보이며 여운을 이어 갔다.



### 자연과의 조화를 꿈꾸다

동시대미감전 <이재효: Walking with Nature> | 5.3~7.3

↔

이재효는 나무와 못을 이용한 대표작을 비롯해 드로잉과 오브제, 아트퍼니처, 환경조형물 등 폭넓은 작업 스펙트럼을 선보여 온 한국 조각계의 대표 작가다. 성남큐브미술관과 갤러리808, 옥외 공간 곳곳에서 펼쳐진 <Walking with Nature: 이재효>전은 자연과의 조화에 집중하는 작가의 철학을 오브제와 드로잉 400여 점, 나무, 돌, 못 작업 등으로 펼쳐 냈다.

# 2016

### 중국 현대미술의 오늘

해외미술특별전 <쓰촨發> | 8.26~10.16 ↘

성남큐브미술관의 <쓰촨發: Lives and Works in SICHUAN>은 동시대 국내외 지역미술의 지형을 소개하고 그 차별성과 공통점을 수평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다.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예술로 '차이나 아방가르드 효과'를 창출하며 세계 미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중국 현대미술의 힘,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쓰촨 지역의 미술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쓰러졌지만 지지 않은 민중의 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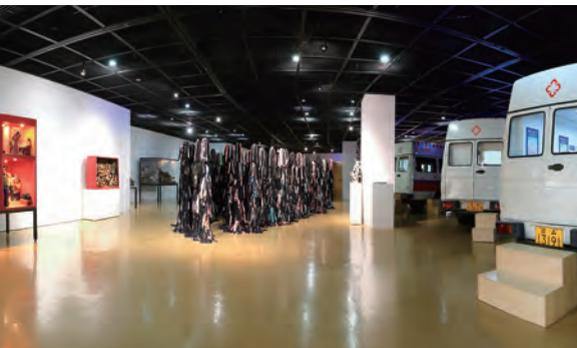
제작 뮤지컬 <금강, 1894> | 12.1~12.4 ↗

시인 신동엽이 갑오농민전쟁을 주제로 완성한 서사시 <금강>이 창작 뮤지컬 <금강, 1894>로 태어났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의 김규중 연출과 <프랑켄슈타인>의 이성준 작곡가가 젊은 감각을 더했고, 주인공 하니役に 손호영, 동학군 리더 이명학役に 이건명·양준모, 진야役に 박지연, 전봉준役に 박호산이 캐스팅되어 열연했다. '쓰러졌지만 지지 않은' 민중들의 정신을 오롯이 담아내며 몽클한 여운을 안겨 준 작품이다.

### 친근하지만 새로운 카르멘

제작 오페라 <카르멘> | 11.17~20 ↗↔

개관 이후 화제의 제작 오페라를 선보여 온 성남아트센터가 2016년, 비제의 <카르멘>으로 또다시 자체 제작 프로덕션을 선보였다. 연출가 정갑균, 지휘자 성시연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는 든든한 드림팀을 중심으로, 카르멘 역은 메조소프라노 엘레나 막시모바와 양계화가, 돈 호세 역은 테너 한윤석과 허영훈이 맡았다. 노련하고 안정적인 연출, 무대와 오케스트라의 밸런스, 엘레나 막시모바의 저돌적인 카르멘 연기까지 조화로운 완성도가 돋보였다.





**분단의 아픔에 대한 오랜 탐구**

동시대이슈전 <송창: 잊혀진 풍경> | 2.10~4.9 ⇐

국내 대표 민중미술화가이자 성남의 대표 작가이기도 한 송창 작가. 그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인 '분단'을 주제로 한 작업을 긴 세월 지속해 왔다. 성남큐브미술관이 준비한 <송창: 잊혀진 풍경>은 평면과 입체, 영상 등 5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작가가 수십 년간 치열히 고민해 온 분단이라는 민족의 이슈를 차분히 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프랑스의 색채와 러시아의 열정**

틀루즈 카피틀 국립 오케스트라, 투간 소키예프, 임지영 4.28

프랑스의 명문 오케스트라 틀루즈 카피틀 국립 오케스트라 ONCT의 첫 내한 공연은 러시아 출신의 차세대 지휘자 투간 소키예프, 2015년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임지영이 함께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과 린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를 들려준 이날 공연은 프랑스의 색채와 러시아의 열정이 만난 호연이었다.

2017

**국내 최초 전막 원어 제작 <탄호이저>**

오페라 <탄호이저> | 10.26, 10.28~29 ⇐

바그너의 <탄호이저>가 성남아트센터에서 국내 최초의 전막 제작 원어 공연으로 선보였다.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트리스탄과 로엔그린, 지그문트를 노래해 온 바그너 전문 테너 로버트 딘 스미스가 탄호이저 역을 맡아 화제를 모았고, 한국인 테너 최초로 2016년 바이로이트에 데뷔한 김석철과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서선영이 함께했다. 지휘자 미하엘 보더와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연출가 박상연까지 정상의 제작진들과 출연진들이 빚어낸 이 작품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바그너 오페라의 제작 프로덕션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2018

**거장의 깊이 있는 통찰을 마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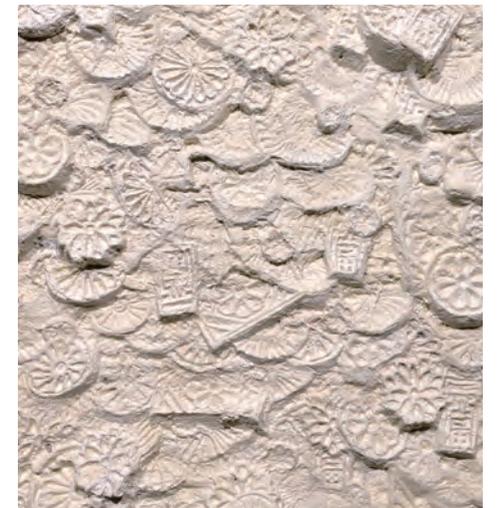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피아노 리사이틀 | 3.31 ⇐

러시아 낭만주의 피아노계의 대모,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의 역사적인 첫 내한 공연.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탐구를 멈추지 않는 노거장의 슈베르트, 여유로운 통찰력과 상상력으로 가득했던 연주는 그녀가 여전히 열정으로 충만한 '현역' 연주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한지로 빚어낸 부조회화**

동시대미감전 <박철: 그리지 않은 그림> 3.16~5.13 ⇐

2018 동시대미감전은 한지의 정신에 우리의 전통을 더한 그만의 한지부조회화를 빚어내는 박철 작가의 예술 세계를 소개했다. 평면과 드로잉, 설치 작품 등 총 70여 점의 기록마다 우리 전통미감의 고졸<sup>精</sup>한 멋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던 <박철: 그리지 않은 그림>은 치열한 장인의 혼으로 빚어낸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2018

## 대륙의 화려함으로 빛어낸 <조씨고아>

중국가극무극원 <조씨고아> | 10.19~10.20 ↑

원나라의 작가 기군상이 남긴 희곡 <조씨고아>는 오랫동안 중국 고전 4대 비극으로 꼽히며 여러 예술 장르로 재해석된 작품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국립예술단체 중국가극무극원은 이 작품을 '대륙의 스케일'을 담은 스펙터클한 무용극으로 선보였다. 문학·무용·연기·음악·무대 장치·의상 등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화려한 대작으로, 전통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연예술의 현재를 고스란히 전해 주었다.

## 카스텔루치였기에 가능한 도전

로메오 카스텔루치 <미국의 민주주의> | 11.3~11.4 ⇐

'전위극의 거장' 로메오 카스텔루치가 신작 <미국의 민주주의> 아시아 초연으로 성남을 찾았다. 2017년 3월 벨기에에서 초연한 이 작품은 프랑스 정치철학가이자 역사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연극, 무용, 영상의 언어를 자유롭게 활용한 강렬한 이미지를 선보였다. 카스텔루치는 이 작품에서 언어와 소통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해 인간의 신앙, 공동체, 정치, 육구와 본능의 세계를 새롭게 제시했다.



## '몸'을 향한 넓고 깊은 시선

동시대이슈전 <바디스캔들> | 3.22~8.25 ⇐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열린 2019 동시대이슈전 <바디스캔들>은 '몸'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조각과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꼬집어낸 작가들의 선명한 철학과 세계관을 보여 준 전시다. 작가들이 표현하는 '몸'은 일곱 명의 주인공들이 각자의 화면에서 열연하는 유니버스 형식의 다큐멘터리처럼, 단순한 인간의 신체 그 이상의 감각을 넘어 저마다의 다채로운 시선과 세계관을 제시하며 깊고 무거운 여운을 남겼다.



# 2019

## 독일 음악의 모든 것

퀵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마렉 야노프스키, 김선욱 | 11.17 ⇐

독일 음악의 자존심, 퀵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이 2015년에 이어 성남아트센터를 찾았다. 이번 내한에 함께한 지휘자 마렉 야노프스키는 폴란드 출신이지만 오랫동안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는 등 독일 음악에 정통한 거장.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김선욱이 협연하는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교향곡 3번 '에로이카'까지 독일 관현악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당신의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남의 얼굴전 <집> | 9.20~12.22 ⇐

2019년 12회를 맞은 성남의 얼굴전 <집>은 집과 도시, 공간에 스며든 예술가의 기록이다. 9명의 작가가 이야기하는 집들의 면면은 저마다의 개성으로 가득했다. 유토피아적 삶을 표현하는 집, 도시 속 건축 공간으로서의 집, 재개발 현장의 상실의 기록을 담아내는 집 등, 다양한 시각 속에서 '나의 집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온 전시다.



#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Calendar](#)

[Map](#)

[Programs](#)

##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 2025년 8-9월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 2025.08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	---------	-----------	----------	--------	----------	--------

㉠ 오페라하우스   ㉡ 콘서트홀   ㉢ 앙상블시어터  
 ㉣ 성남아트리움   ㉤ 큐브플라자 미디어홀  
 ■ 성남문화재단 기획

				1	2	3
4	5	6	7	8	9	10
		■@무료 정기상영 <밀정>(14:00)				
11	12	13	14	15	16	17
		■@무료 정기상영 <아이 캔 스피크>(14:00)				
18	19	20	21	22	23	24
	■㉡2025 천원 행복 플러스 <스페인 말레니엄 합창단 초청 연주회>(15:00)	■@무료 정기상영 <영웅>(14:00)	■㉡마티네 콘서트(11:00)	㉡성남 청소년 교향악 페스티벌 개막식(19:30) ■㉢연극만원 5 <수상한 집주인>(19:30)	㉢제5회 가현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19:30) ■㉢연극만원 5 <수상한 집주인> (14:00, 18:00)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클래식 이야기 14(19:00) ■㉢연극만원 5 <수상한 집주인>(14:00)
25	26	27	28	29	30	31
	㉢2025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19:00) ㉢권마리·신애라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19:30)	㉢제4회 시민과 함께하는 창작영화제(17:00) ■@무료 정기상영 <타인의 삶>(14:00)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19:30)	■㉢앙트레 콘서트: 남상일×AUX <Enjoy the 樂+ROCK>(19:30) ㉢제37회 성남오라토리오 합창단 정기연주회(19:30)	㉢성남 청소년 교향악 페스티벌(17:00) ㉢가족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11:00, 14:00, 16:30) ■㉢국립무용단 <사자의 사>(15:00)	㉢성남 청소년 교향악 페스티벌(17:00) ㉢정영안 첼로 독주회(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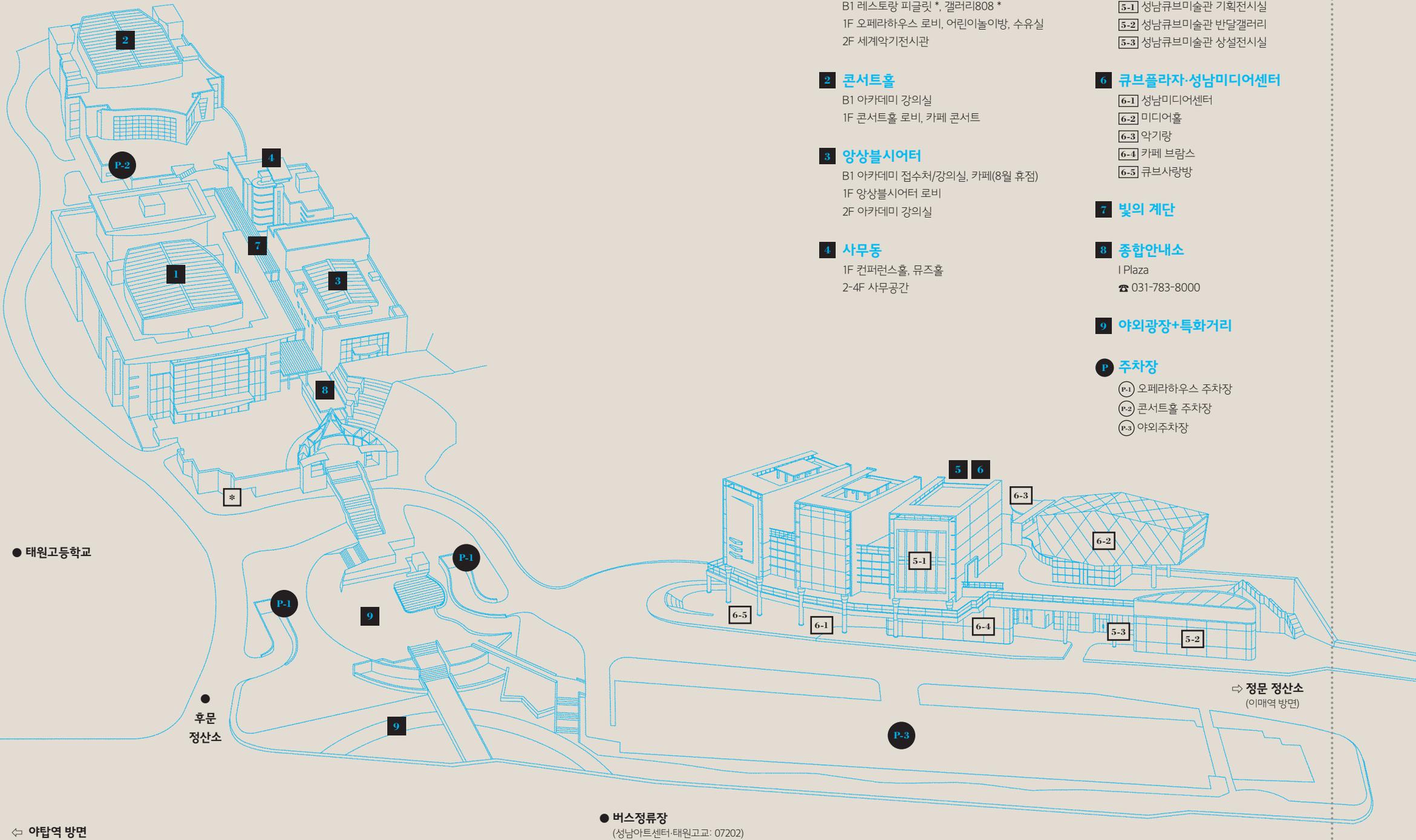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2025 지역예술가교류전 <감각퍼즐>	7월 25일~9월 28일	반달갤러리 상설전시실
■ 2025 여름특별기획전 <BE CHILD - 아이처럼>	8월 8일~10월 26일	기획전시실

\* 전시 관람 시간 10:00-18:00(월요일 휴관)

갤러리808		
왕문현 작품전: 영혼의 문		7월 30일 ~ 8월 6일
성남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전시: <과기쁨: 각주의 각주> <sup>3회차</sup> <한광우: 사색의 운동회 - 함께하기, 즐기, 사색하기> <sup>1전시실</sup>		8월 9일 ~ 8월 16일
제4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8월 19일 ~ 8월 30일
제4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		9월 2일 ~ 9월 13일
2025 성남아트페어		9월 17일 ~ 9월 24일
성남아트상품전		9월 28일 ~ 10월 9일

\* 전시 관람 시간 10:00-18:00(월요일 휴관)

# 성남아트센터 공간 안내



## 1 오페라하우스

B1 레스토랑 피글릿 \*, 갤러리808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2F 세계악기전시관

## 2 콘서트홀

B1 아카데미 강의실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 3 앙상블시어터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8월 휴점)  
1F 앙상블시어터 로비  
2F 아카데미 강의실

## 4 사무동

1F 컨퍼런스홀, 뮤즈홀  
2-4F 사무공간

## 5 성남큐브미술관

5-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5-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5-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 6 큐브플라자-성남미디어센터

6-1 성남미디어센터  
6-2 미디어홀  
6-3 악기랑  
6-4 카페 브람스  
6-5 큐브사랑방

## 7 빛의 계단

## 8 종합안내소

I Plaza  
☎ 031-783-8000

## 9 야외광장+특화거리

## P 주차장

P-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P-2 콘서트홀 주차장  
P-3 야외주차장

● 태원고등학교

● 후문 정산소

⇒ 정문 정산소  
(이매역 방면)

⇐ 아탑역 방면

● 버스정류장  
(성남아트센터-태원고교: 07202)

**앙트레 콘서트: 남상일×AUX <Enjoy the 樂+ROCK>**

전통과 록의 짜릿한 만남! ‘국악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남상일, <풍류대장>의 감각적인 크로스오버 밴드 AUX가 펼치는 흥겨운 국악 콘서트가 성남아트센터 앙트레 콘서트로 찾아온다.

공연은 남상일의 판소리와 우리 가락이 펼쳐지는 1부 ‘Enjoy the 樂’, AUX가 록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민요를 만날 수 있는 2부 ‘Enjoy the ROCK’, 남상일과 AUX가 함께 꾸미는 3부로 이어진다. 우리 전통의 흥과 멋, 록의 폭발적인 열정이 어우러진 무대, 지금껏 듣지 못한 새로운 국악을 만나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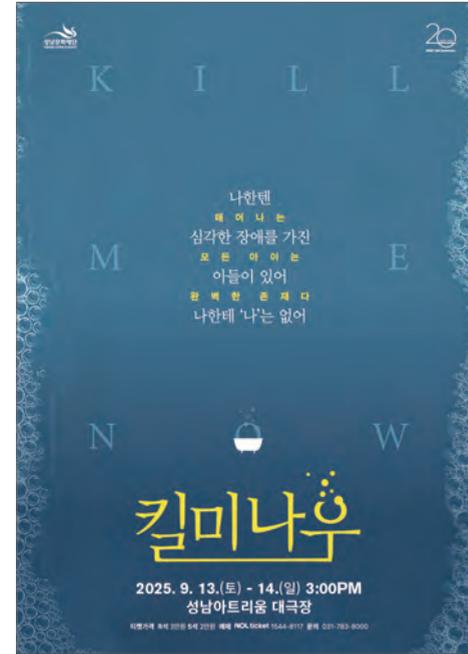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8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티켓 20,000원  
 문의 031-783-8000



**마티네 콘서트 8월**

2025년의 마티네 콘서트는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잘츠부르크, 린츠 등에서 태어나고 활동한 음악가들과 그들의 음악을 소개한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주제 아래 펼쳐지는 8월 마티네 콘서트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를 주축으로 한 발트 앙상블이 오스트리아 작곡가들의 실내악을 소개한다. 마티네 콘서트 진행자인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오랜만에 본업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 중 4악장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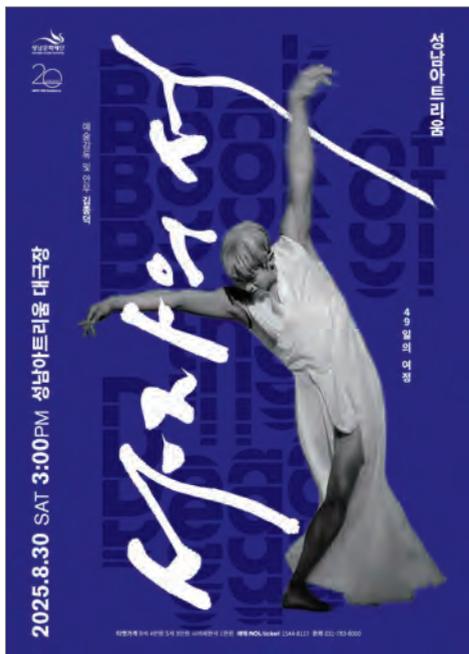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8월 21일(목) 오전 11시  
 티켓 전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



**연극 <킬 미 나우>**

초연 이후 수없이 재연되며 오랫동안 호평받은 연극 <킬 미 나우>가 성남아트리움을 찾아온다.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들 조이와 그를 위해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아버지 제이크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단순히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아픔을 표면적으로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들이 지닌 보편적인 욕망과 좌절, 그로 인한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 낸다. '정상'과 '장애'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작품.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9월 13일(토), 14일(일) 오후 3시  
 티켓 R석 30,000원, S석 20,000원  
 문의 031-783-8000



**국립무용단 <사자의 서>**

국립무용단의 <사자의 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불교 경전인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죽음 후 망자가 겪는 49일의 여정을 총 3장에 걸쳐 보여 준다. 성남아트리움 무대의 규모에 맞게 25명이 출연하는 버전으로 재안무되었으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와 전통 복식에 현대성을 가미한 의상이 아름다운 미장센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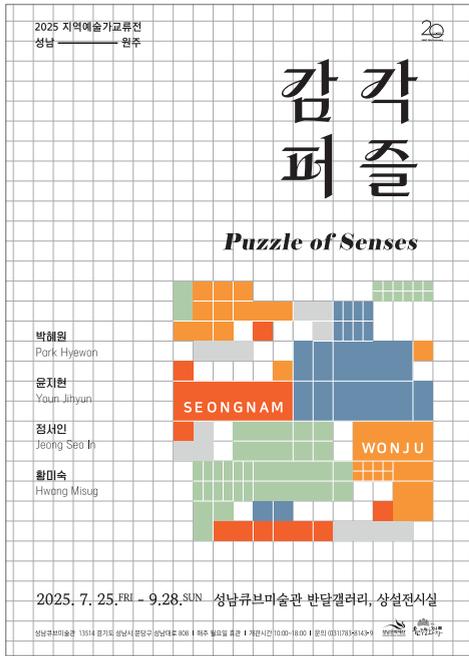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8월 30일(토) 오후 3시  
 티켓 R석 40,000원, S석 30,000원  
 문의 031-783-8000



**필하모닉 스트링 퀸텟 베를린 내한 공연**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연주자들이 더블베이스를 포함한 5중주 편성으로 성남아트리움 무대에 오른다. 드보르자크 5중주의 깊이 있는 재해석부터 파가니니의 화려한 명곡까지, 한 무대에서 현악 앙상블의 모든 매력을 남김없이 선보일 예정. 정통 실내악 레퍼토리의 밀도 높은 앙상블부터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까지, 클래식 음악 애호가와 입문자 모두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9월 20일(토) 오후 5시  
 티켓 R석 40,000원, S석 30,000원  
 문의 031-783-8000



**2025 지역예술가교류전 <감각퍼즐>**

성남큐브미술관은 타 지역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성남 지역 예술가의 창작 영역을 확장하고, 동시대 예술가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유의미한 시간을 갖고자 '지역예술가교류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지역예술가교류전은 원주문화재단과의 교류로 성남의 정서인 박혜원 작가, 원주의 윤지현·황미숙 작가가 지역을 잇는 새로운 예술 지형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상설전시실  
**일시** 7월 25일(금)~9월 28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쉬)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3~9



**여름특별기획전 <BE CHILD - 아이처럼>**

네덜란드 그래픽 아티스트 텐체 플뢰르의 개인전 <BE CHILD - 아이처럼>이 성남큐브미술관 기획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화사한 원색과 기초 도형을 주요 언어로 삼는 플뢰르의 작품은 어린 시절의 감각과 자아를 오늘의 예술로 소환한다. 색과 형상 너머, '나라는 존재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잊고 지냈던 감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일시** 8월 8일(금)~10월 2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쉬)  
**티켓** 성인 12,000원, 청소년 10,000원, 어린이 8,000원  
**문의** 031-783-8000



**2025. 9. 20. SAT. 5:00PM**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티켓가격 R석 4만원 S석 3만원 시야제한석 1만원 예매 NOL ticket 1544-8117 문의 031-783-8000

# 2025년 2학기 성남아트센터 감상인문 아카데미

오페라 살롱 황지원

미술애호가 및 콜렉터과정 (갤러리, 미술관 현장 수업)\_9회 김종현

클래식 포레스트 황장원

철학과 미학으로 해석해 가는 서양미술사 윤우학

오페라 아리아 아모레 강성곤

이은화의 세계 미술관 산책 이은화

즐거운 음악 감상 김상현

아트 앤 뮤직 큐레이션 최정주

### 접수 기간

온라인 접수 2025. 7. 15.(화) 10:00~  
현장 접수 2025. 7. 17.(목) 10:00~

### 강의 기간

2025. 9. 2.(화) ~ 12. 19.(금) 13회 과정  
강좌별 상이 (강좌별 첫 주 무료 오픈 특강)

### 강의장소

큐브플라자 3층 미디어홀

### 수강료

180,000원

### 문의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031)783-8156  
(평일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자세한 사항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www.snart.or.kr) 아카데미 참고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아트센터의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 법인회원

#####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이노엘 대표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서창우/석남연 한국파파존스(주) 회장 / 동양연우보험대리점 대표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손일선/김상일 태평염전 회장 / 태평염전 사장  
안봉혁/어윤경 유씨테크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이엔지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워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 철쭉회원

김부경/김모민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김상한/오다영 아람휴비스(주) CEO  
박동순/강송희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변봉덕/이매연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우문식/조남숙 (주)인베이트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이상우/강지선 (주)픽셀플러스 대표이사  
이서규/황해숙 (주)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사)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 개인회원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이윤이 (주)한솔교육 대표이사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 탄천회원

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박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육자 전 (주)씨너스 회장

##### 철쭉회원

강정원/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호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고옥주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상우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복기 전 한국문화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회장  
김연태/이주숙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김영수/원준순 전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김중현/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세한양 대표변호사, 전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전 농협중앙회 이매동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궁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 백미경/강대식

박지영/윤영민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로즈피부와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와 청담점 원장  
백중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서정림 전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손의명/손희자 치과 의사 / 한국화가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오경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유성희/유성은 (주)인홍 대표이사 /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 이연옥/조상수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연옥/조상수 성남정자초등학교 교사 / 낙원중학교 교장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이윤이 (주)한솔교육 대표이사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웍션 이사  
임상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인선/채인호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교수 /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임현주/김윤선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엔엑스엠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 장형환/임경희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림/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승설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악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전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조남주/이규철 미술단체(線과色) 前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재단 이사장  
최병오/박종길 패션그룹형지 회장  
최은희/현형모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탁승희 전 대교 이사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홍재자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영일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미라 21세기 미끄럼의원 원장  
윤한남 화가  
전동욱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사장  
주재근 정효문화재단 대표

##### 까지회원

김상수 (주)UBE모터스 고문  
김성민 운중농원갈비 대표  
김홍태 하팅코리아(주) 대표이사  
목영애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사)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박미영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성악가  
우주호 (주)리크루즈 여행 대표이사  
이규영 (주)한솔교육 대표이사  
이윤이 HCS 대표  
정희재 지휘자  
조현우 변호사

##### 백선정

오미주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성악가  
우주호 (주)리크루즈 여행 대표이사  
이규영 (주)한솔교육 대표이사  
이윤이 HCS 대표  
정희재 지휘자  
조현우 변호사

##### 명예회원

박영숙 전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선희 전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무대미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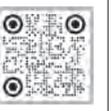
####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강효주 부회장 황광석, 김상일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최은희, 신상진, 윤영상  
감사 김길복, 김문기

####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 작지만 큰 극장으로 초대합니다

성남아트센터의 숨은 꿀자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영화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극장 티켓 가격도 만만치 않고, OTT 구독 비용도 우리 지갑을 훌쩍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성남아트센터 내에도 상영관이 있고, 무려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큐브플라자 3층에 자리한 미디어홀이 그곳입니다!

글 강준구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이곳에서는 성남미디어센터가 기획한 다양한 영화 관련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우선 미디어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정기상영'은 매월 특별한 주제로 영화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8월에는 '영화로 만나는 자유의 날', 9월에는 '황폐한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상영되죠.

그 외에도 엄선된 무료 영화 상영과 인문 강좌를 통해 삶에 관한 성찰을 나누는 '시네클럽'(강좌는 유료입니다), 성남의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다시영화제' 등 미디어홀의 스크린은 여러분을 위한 다채로운 기획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동네극장' 메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미디어홀 이용 꿀팁 하나 더! 꼭 영화 상영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소정의 금액으로 장소 대관도 가능합니다. 총 98석의 객석을 갖춘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 목적의 작은 연주회부터 강연, 상영회 등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단, 상업적·종교적·정치적 목적은 제외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홀 영화 상영 안내: 성남미디어센터 snmedia.or.kr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 파크콘서트 PARK CONCERT

6.14

FTISLAND  
LUCY

9.6

10CM  
다비치

9.27

김범수  
HYNN 박혜원

Sat. 7pm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주최·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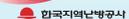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후원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문의 031.783.8000



한국지역난방공사

